

광 고

원양산업

제 1125 호
(2020년 9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사업 홍보 4 /
- 제7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5 /

■ 협회 8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6 /

■ 명태 요리 만들기

(두부명란젓찌개) 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8월 보고 내용 11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올해 중서부태평양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22 /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강세 2

- Tesco, 인도양 황다랑어 최후통첩 3
- 태평양 가다랑어 어가 강세 4
- 태국 냉동 가다랑어 수입, 5년 내 최저 47
- 日,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제안 논의 52
- 일본 냉동 가다랑어 포 용 원료 강세 67
- 세계 첫 MSC 참다랑어 도요스시장 상장 67
- 태평양 참치 어업 코로나19 지침 도입 77
- 세이셸에서 스페인 선원 코로나19 양성 반응 72
- 신선 가다랑어 케센누마 60% 감소, 2,000톤 이하 82
- 일본 에히메현 츠지수산, AEL 취득 82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회사 트롤선 신조 97
- 日 신선 살오징어 8월 조업 10% 감소한 3,200톤 92
- 일본 선망 어선 오징어 어획 상황 97
- 일본 살오징어 분포량 전년 미달 97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일본 명태 MSY 이견 13

■ 꽁치어업 동향

- 꽁치 2019년 수입 30% 증가한 6,400톤, 거의 대만産 23
- 일본 신선 꽁치 수량에서 탈출 3
- 일본 꽁치 8월 조업 90% 감소 가능성 4
- 샌다이시장에서 꽁치 판매 경쟁 시작 53
- 일본 꽁치 봉수망 첫 어획 900kg 3
- 일본 꽁치 재고 5월말 13
- 일본 꽁치 조업 대형어선 해금 7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선박 평형수 검사 장비 소개 사이트 등장 83
- 일본 파나소닉 자회사, 업계 최초 야외 전용 냉동고 판매 10
- 코로나 영향 조합원 60%가 매출 감소 04
- 日 테쿠니칸社, 액체 급속 동결기 「凍眠」 보급 계획 10
- 日 7월 수산물 수입 칠레 은연어 55% 증가한 3,887톤 14
- 7월 수산물 수출 수량 6% 증가, 금액 14% 감소 34
- 일본 수산물 시장 경유율 첫 50% 붕괴 34
- 일본, 소금 미사용 고등어 통조림 발매 44
- 올해 일본 급식 시장 3% 축소 4.7조 엔 54

■ 각국 수산 동향

- 미국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에 실제 매장 오픈 64
- 나미비아 어업 쿼터 경매 실시, 6억 2,790 N\$ 확보 4
- 노르웨이 수산물 8월 수출액 14% 감소 84
- 가나, 중국 불법 어선에 다시 허가 부여 84
- NOREBO 신조 트롤선 진수 10
- 러시아 태평양 연어·송어 30만톤 대 공산 05
- 노르웨이 수출 1~7월 수산물 3% 증가한 608억 크로네 05
- 중국, 태평양 EEZ에 대한 지배력 강화 15

■ 쉬어가는 난 (詩)

- 그 저녁바다 <이정하> 25

■ 국내 수산 뉴스

- 해수부,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추가 마련 35
- 해수부, 혁신성장의 마중물, 해양수산 신기술을 소개 45
- 2020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실시 55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설계 공모 55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5
-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75
-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기준 행정처분 8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사업 홍보

부산 일간지, 라디오, 수산전문지 등 광고

우리 협회는 9월 1일부터 부산일보, 국제신문, CBS 라디오, 수산전문지 등을 통해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지원 사업 홍보를 시작했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CBS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프로그램 1부와 2부 사이(10시 58분)에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협회는 유골을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원양어업인들의 공로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홍보를 계획했다.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지원 사업은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다 해외에서 순직한 원양선원들의 유골을 유족이 국내로 이장할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외에서 순직한 원양선원들의 공로를 높이 사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업을 우리 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으로 라스팔마스, 사모아 등 4개 지역에서 총 31기의 유골을 국내로 송환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우리 협회 이성재 부장은 『고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모아의 선원모지 위령탑에 새겨진 '겨레의 풍요한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략) 위대한 개척자의 영이여 보람찬 겨레의 핏줄이여 이곳에 편히 깃드소서'라고 박목월 시인이 헌사 한 추도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조국의 번영을 위

부산일보
2020년 9월 11일 목요일 제1125호

서울 아파트 한 채면 부산 3채 산다

태풍 '마이삭' 한반도 강타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지원 사업 홍보

원양어업이 벌어들인 외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양어업인들의 개척자적 정신과 종교한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7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2021년 포클랜드 외국어선에 적용되는 영국 어선법령 검토

우리 협회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오징어 채낚기출어선사로 구성)는 지난 9월 3일에 화상으로 올해 7번째 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남서대서양 오징어 채낚기 13개사와 우리 협회 신현애 이사를 비롯한 해외협력 1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포클랜드 수산청이 2021년부터 외국적 어선 입항 시 적용 예정인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추가 검토하도록 요청하여와 이날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검토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포클랜드 수산청은 올해 5월에 현지 대방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만 등 외국인 선주들에게 항만국 검색(PSC)을 위해 영국 어선법(MSN 1873) 및 관련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해당 법 적용에 있어 면제 및 유예 필요 사항의 검토를 요청해 왔다. 영국 어선법은 IMO 케이프타운협정(어선 안전 관련 협정)을 반영하고 있다.

포클랜드 수산청은 갑작스러운 법 적용으로 그간 포클랜드 제도 수역 내에서 조업해 오던 외국적 어선들이 동 법의 상당부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속 입어할 수 있도록 외국적 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포클랜드 수역 출어 선사들은 그간 업계 공무감독 중심으로 6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한 우리나라 업계 측 의견을 3차례에 걸쳐(7월 중순, 8월 초, 8월 말) 포클랜드 제도 입어 대방사를

통해 수산청에 전달했다.

아울러, 포클랜드 대방사 측에서 이행 불가능한 규정에 대해 독립적인 선박 검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관 의견서와 업계 측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8월 오징어채낚기업계들은 한국선급과 간담회를 가져 자문을 구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한국선급이 해당 조항에 대해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우리나라 선박안전기준에는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발급함에 따라 업계는 의견서와 업계 측 의견을 포클랜드 제도 대방사측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8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회의를 9월 14일에 개최해 현존선(1995년 이전 건조 어선)에 추가적으로 면제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업계 측 의견을 포클랜드 입어 대방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클랜드 수산청은 대방사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은 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영국 해양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협회 8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해수부 수산정책관 협회 방문 면담
 - 일자/장소 : '20.8.13, 17:00 / 협회본부
 - 참석자 :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 양영진 원양산업과장, 서민혜 사무관/ 협회 양임원 등
 - 내용 : 협회 일반현황 및 원양산업 주요현황 소개와 현안사항 의견교환 등
- '20.8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8.5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6척 57.36억원 원안의결
-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 알림(8.7/전 회원사)
 - 금리 : 종전 3% ⇒ 2%(1%p 인하) / 중소기업 대상
 - 기간 : 1년간('20.8.10~'21.8.9) 한시적 인하
 - *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제4차 추가대책 추가경정 예산에 원양업계도 포함
- 수산물 유통·수급 TF 관련 업무추진(해수부)
 - 코로나19 관련 해수부 수산정책과에 원양수산물 양륙량 관련 통계 월간단위 제출
- 국제 입어협상 화상회의 시스템 완비 구축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협회 대회의실에 각종 국제 입어협상 등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완료
- 5층 수익사업 임대 재계약 체결추진
 - 업체명 : (주)프라임시스템
 - 계약기간 : '20.9.1~'22.8.31(2년간)
 - 임대평수(505호) : 95.42평
- '20. 7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0. 4차분 기본운영회비 부과 추진
- '20년도 수익사업 중간 결산 세무조정 업무추진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작성 등
- '20년도 수익사업 상반기 법인세 가결산 세무조정 신고(서초세무서)
 - 5층 임대사업 및 차량계량소 수익사업 세무조정
 - * 오정근 세무사 세무조정 의뢰신고(8.31한)
- 2020 원양산업통계연보 발간 관련 업무추진
 - 정부통계 및 수산행정기본자료 확보
 - 통계연보 2차 교정

회원지원부

- 코로나 관련 회원사 안내 및 조사
 - 한시적 어선검사 연장지침에 따른 업무대행 알림(전화원사/8.6)
 - 해수부 →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검역관리 강화 조치 시행 변경 안내(전화원사/8.10)
 - 러시아 출항 선박 중 14일내 선원교대가 있는 선박은 진단검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교육 안내 요청(전화원사/8.10)
 - 보건용 마스크 국외반출 승인 알림(전화원사/8.10)
 - 5개사 8,900장
 - 보건용 마스크 국외반출 희망수량 재 파악 및 국외반출 안내(전화원사/8.10)
 - 진단 검사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전화원사/8.20)

- 선박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발령 알림(전화원사/8.20)
- 진단 검사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전화원사/8.20)
 - 외국인은 발급 불허
- 검역관리 강화 조치 변경 안내(전화원사/8.21)
 -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러시아 출항 선박이 타국을 경유하여 14일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전 선원 진단검사 실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러시아 출항 선박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전화원사/8.21)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계획 알림(전화원사/8.24)
- 임시생활시설 운영 협조 안내(전화원사/8.28)
 - 격리의무기간동안 객실 또는 시설밖으로 이탈 하지 못하도록 관리 협조요청
- 코로나19예방 선내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철저 준수요청(전화원사/8.28)
- 미얀마 임시항공편 운항알림 (전화원사/8.28)
- 2020년 임금교섭관련 업무 추진
- 가. 노사양위원장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8.18, 12:00 / 부산시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조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나. 제6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8.19, 12: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외 1인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다. 제3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8.19, 15: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외 1인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라. 노사양위원장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8.27, 12:00 / 부산시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조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선원 근로조건 관련 업무 추진
- 가. 외국인선원 관련 NGO와의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8.5, 14:30 / 어필(서울)
 - 참석자 : 김종철 변호사 등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관련 업무협의 등
- 나.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참석
 - 일시/장소 : '20.8.6,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과장 외, 선원노련, 원양노조, 원양업계 / 경영지원본부장 외 1인
 - 내용 : NGO에서 제기한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향 논의
- 다. 어선원근로조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8.18,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해양대, 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해상노련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용역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발표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표준안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표준안 관련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8.7,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동원산업, 동원해사랑, 아그네스수산, 코삭교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회원지원부장 외 1인
 - 내용 : 안전관리지침(안) 검토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표준(안) 제출
(해수부/8.28)

- 업계 의견수렴 사항 반영

○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8.21, 14:00 / 선주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해상노련,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협의

○ 선내의약품 및 의료기구 비치 기준 고시안 마련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8.19, 16: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선주협회,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선내의약품 및 의료기구 비치 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관련 관외생산확인서 발급

- 2개 어종(민대구, 전갱이) 6개사 9척

○ 맹성규의원실 요청자료 취합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최근3년간) / 원양노조에서 준비 중

- 내국인, 외국인선원 재해보험가입현황 / 자료 취합 중

○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추진

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제출(해수부/8.14)

- 선상가공업 신고 제출서류 개정 의견 제출

나.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회원사/8.26)

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등 제정알림(회원사/8.26)

-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시행(‘20.8.19)함을 안내

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회원사/8.28)

- 여권 및 신분증 등 대리보관금지

-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근거 신설 등

○ 2020년도 해외선원모지관리 사업 관련업무 추진
가. 중간보고서 제출(해수부/8.20)

- 지역별 사업 준공률 및 사업추진내용 등

나. 홍보계획 제출(해수부/8.21)

- 라디오(CBS), 일간지(부산일보, 국제신문) 및 수산전문지(10개사)

○ 제35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방식 의견회신(중심원/8.6)

- 주제 발표는 영상촬영 공유, 세부자료는 책자로 배포

○ 2020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알림(전화원사/8.5)

- 일시 및 장소 : ‘20.9.7 - 9.18 / 부산시

○ 202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4차) 조사
자료 제출(해수부/8.11)

- 10개사 52명(3차 : 11개사 55명)

○ 제5호 태풍 북상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철저
요청(전화원사/8.10)

-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 및 기상청 정보 주시 등

○ 해적관련 업무추진

가. 해적피해예방요령 개정을 위한 업체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8.14, 10:3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연수원, 선주협회, 운반선협회,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피해예방요령 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

나.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32주간보고서
공유(전화원사/8.13, 8.21, 8.27)

다. 위험해역별 해적피해예방요령 개정안 의견제출
(해수부/8.21)

- 선원의 안전보안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요망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원양산업지 제작(8월호 1124호) 제작
 - 협회소식 2건, 국내소식 6건, 해외수산정보 46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124개소 323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67호 8.5, 68호 8.12, 69호 8.26/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67호 정보 11건(만타 가다랑어 어가 상승 가속화/ 일본 가나자와항 신선 살오징어 어획 계속/ 콩치 최악 수준 홍어 예측 등)
 - 제68호 정보 13건(EU, 베트남산 참치캔 무관세 물량 배정/ 일본 명태 이번 어기 쿼터 6.5만톤 /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관련 EU 압박 등)
 - 제69호 정보 13건(태평양 가다랑어 어가 강제 / 일본 명태 MSY 이견/ 일본 선망 오징어 어획 상향 등)
 - 각 호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원양 어획물 제품 개발 관련, 업무 추진
- 가. 국립수산물과학원 방문·협의
 - 일시/장소 : '20.8.4, 14:00/ 과학원
 - 참석자 :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기공과 김풍호 연구관, 장미순 연구사 / 홍보센터 김현태 이사, 김영수 과장
 - 내용 : 협업 연구 가능, 협회에서 주제 설정 하여 '기술 개발 제안서' 제출 필요
- 나. '원양어획물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 방안' 설문(관심도) 조사(8.12, 8.26한, 전화원사)
 - '원양어획물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 방안'을 알리고 해당 기관과 MOU 체결 등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관심도) 조사
 - (협회-국립수산물과학원) 협업 연구, 기술개발
 - (회원사-경기대) 협업 연구, 제품개발/ 산학협력 강의/ 신제품 홍보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KMI UN BBNJ 협약 증장기 대응전략 연구 관련 업무협의
 - 일시/장소 : '20.8.5, 10:00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KMI 박수진 연구위원 외 2명 / 해외협력 1부
 - 내용 : 원양어업 공해 비중 및 BBNJ 협약 이행 시 영향 등
- 원양업계 제2차 T/F 회의
 - 일시/장소 : '20.8.5, 14: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사조산업 등 T/F 해당 회사 / 협회 T/F 간사 등
 - 내용 : 참치연승 근로시간 단축 및 선원 교육 등 협의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16차 과학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8.12~19 / 영상회의
 - 참석자 : 미국, EU, 일본, 태평양수산물위원회(FFA), PNA, 옵서버 등 (우리 측) 해수부, 과학원,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협력 1부 대리
 - 내용 : 중서부태평양수역 주요 참치어종 자원 평가, 옵서버 프로그램 등 위원회 자료 및 통계 검토 등
- 참치어업 지원사항
- 가.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나. '20/21어기 키리바시 입어약정 협의 중
 - 우리 측에서는 전제세 산정 방식 변경 등 요구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가.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나. WCPFC dCMR 작성 협조(8/24)
- 다. 7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실적 보고(과학원)

○ 오징어어업 지원업무

가. 제6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8.13,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선사 14개사
/ 해외협력 1부 차장
- 내용 : 포클랜드 항만국검색(PSC) 및 대방사
방한 건 협의

나. 포클랜드 어선법 적용 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20. 8.20, 10:00
/ 한국선급 회의실
- 참석자 : 남서대서양 오징어어업 출어사
/ 해외협력1부 이사 외 1명
- 내용 : 오징어채낚기 선박에 적용 불가능한
포클랜드 어선법 조항 관련 한국선급
의견 요청

다. 포클랜드 어선법 적용 관련 간담회 후속조치

- 구조정 진수장치로 대빗(Davit)/JIB크레인/
면제 요청 선박 조사
- IMO 요건에 맞는 소각로 설치 여부 조사
- MSN 1873 적용에 대한 한국선급(KR) 의견서
건의 및 접수(8/28)

라. 포클랜드 항만국 검색 대비 의견 전달 및 문의
(대방사)

- 소각기, 구조보트, 구명조끼 등 구비 의무
규정 문의

마. 2021어기 포클랜드 오징어채낚기 입어선박
목록 관련 문의 및 대방사 회신 내용 전달

○ 마다카스카르 인근 프랑스 EEZ 통항 보고안내
(전화원사)

- EEZ 입퇴역 시 선박명, 선박위치, 입퇴역시
간, 선적량 등, 위반 시 벌금 30만 유로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사항 변경 전문 발급 알림
(8.3 / 한성기업)
- * 준성호 선원수 변경
- 동북극 국경수비대 추가 계약서 서명본 제출
(8.18 / 동북극국경수비대)
- 조정관세 대상 품목 어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 제출 요청(8.21 / 북양위원사, 콩치위원사)

나.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및 허가장
변경 전문 알림(8.3, 8.6, 8.13 / 해수부, 러수산청,
원양물산, 삼영수산)
- * 301삼영호, 제101동해호 선원수 변경
- 러수역 조업보고 제출처 업데이트 및 관련내용
알림(8.3 / CFMC, 콩치위원사)
- 러수역 조업 관련 내용 입수 및 알림(8.13, 8.14
/ 사할린국경수비대, 콩치위원사)
- 체크포인트 통과후 조업지역에 도착한 선박의
조업 허용 내용 알림

- 러수역 입역 보고 내용 및 제출처 알림

- 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사항 허가장 변경 전문
발급 알림(8.18 / 삼영수산)

- * 301삼영호 선원수 변경

○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업무추진

- 제7동일호 채낚기어업 추가 등록
(8.13 / NPFC사무국)
- 제7동일호 원양어업허가증 변경발급에 따른 및
NPFC 선박정보 변경

○ 20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업무추진

-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등록
(e나라도움 / 8.13)

- 러시아 경제수역내 조업금지 내용 알림
(8.24 / 북양위원회, 한·러어업위원회)
 - '20.8.24, 21:00 ~ 9.4, 24:00(UTC 기준) 러시아 베링수역 군사훈련으로 인한 어선들의 조업 중단 정보 입수 및 알림
- 남극 MPA 워크숍 연기
 - 환경정의재단으로부터 워크숍 연기(8.20 → 9.25) 통보 받음
- 남태평양수산위원회(SPRFMO) 업무추진
 - 세종호 전갱이 쿼터 반납 요청 공문 입수 (8.19/동원산업)
 - 코로나19 선원 감염 우려 및 항공기 제한으로 10월초 조업선을 국내 회항하기로 결정, 해당 쿼터 SPRFMO 사무국을 통한 타국 전배 요청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87개사 700건('20.8.1-8.31)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8.5,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0.7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0.7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3척(오징어채낚기 1, 참치연승 2)
 - 출항 : 5개사 6척(꽂지붕수망 1, 참치선망 1, 참치연승 4)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제16차 WCPFC 과학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8.12~19/ 협력센터 회의실(화상)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주요 관리어종 자원평가 결과 논의
- IOTC 수석대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8.18 / 협력센터 회의실(화상)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연례회의 의제 및 진행방식 논의
- 일본 해양수산 동향 조사
 - 가. 방사능 처리수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자료 송부 (해양환경정책과)
 - 나. 독도, 조어도, 북방영토, 무인도, 해양법 관련 동향 자료 송부(해양영토과)
 - 다. 일본 수산청 어업 종합 지원 사업 (돈이 되는 어업 : 원양 연승) 관련 조사
 - 라. AI 활용 기술, 최대 멧게 산지 변동, 이빨고기 시장 축소 등 일본 수산업 신기술 및 수산업 동향
- 중국 해양수산 동향 조사
 - 중국 '딥블루 1호'를 이용한 연어 양식 현황, 다표위다오(조어도) 관련 동향 모니터링(해양영토과)
- 보존관리조치 번역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 항만국 조치 책자 발행
 - FAO, 지역수산관리기구 항만국 조치 규범 조사 및 책자 발행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센터 업무협의
 - 일시/장소: '20.8.20 13:00/ 센터 회의실
 - 참석자: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창목, 장민주 주무관,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양재걸 팀장, 이재영 행정관
 - 내용: 사업간 예산 전용 방법, 예산 비목간 금액 조정, 전문관 교육훈련 계획 협의
- 세계수산대학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
 - FAO 협력 연락사무소 회의 발언문 및 서한 작성
- 기타
 - (ICCAT) 19년도 어획량 보고자료 작성 지원
 - 제3차 한-인니 해양공동위 MOU 수정 및 발언문 작성
 - 8월 국제수산 월간동향 작성, 게시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20건 업로드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에 등록(7건)
- 나.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서식 개선 수요조사 (8.3~8.13, 전화원사 등)
 - 수요조사 결과 반영, 코로나 현황, 경쟁국가 현황을 기존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결정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주한 가나 대사관 출장
 - 일시/장소: '20.8.6 / 서울 주한 가나 대사관
 - 참석자: 주한 가나 대사관 Mr. Samuel Sevor 참사관, 구안나 대사 비서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주요내용: 어시장 건설 사업 물자 통관 처리 관련 검토 및 사업 추진 협조 요청
 - 나. 마이크로네시아 '22년 ODA사업 추진계획 수립(8.10)
 - FSM에서 '22년 ODA사업으로 "소규모 어시장 건설" 요청
 - 사업비: 약 5억원
 - 사업지: FSM, 축(Chuuk)주 내 Old Truk Fishing Coop site

- 다. 세네갈 '18년 사업 관련 영상회의 진행
 - 일시/장소: '20.8.27, 18:0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세네갈 수산부 Mr. Diop 국장, 주한 세네갈 대사관 Mrs. Dieng 제2서기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18년 사업 추진현황 확인, 사업 종료계획 논의, 종료 후 사업 추진방안 논의
- 마. 가나 '18년 사업 관련 영상회의 진행
 - 일시/장소: '20.8.28, 18:0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가나 수산부 Mr. Bannerman 국장,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주한 가나 대사관 Mr. Sevor 참사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18년 사업 추진현황 확인, 사업 종료계획, 종료 후 사업 추진방안 논의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원양어업 통계조사 업무추진
 - 통계조사 단독 조사표 무응답 처리
 - 통계조사 결과 검토 자문('20.8.21~25)
 - 자문위원 4명에 검토 요청
 - 통계조사 단독기업체 결과(공표) 자료 제출 (8.28, 해수부)
 - 나. 원양산업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20.8.7 / 해외수산협력센터
 - 참석자: 해수부 서민혜 사무관, 신충훈 주무관, 서범석 주무관, FMC 강원진 센터장, 김승현 주무관,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 주요내용: IUU 정보 업데이트, 중국 원양산업 조사 등 원양산업 실태조사 용역 착수 보고
- 중국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이지현 인사발령(8.24)
 - 결격사유 조회, 연봉계약 체결



두부명란젓찌개



❖ 재료

- 4인분/64Kcal
- 재료 : 두부 1/2모, 명란젓 50g, 쇠고기 30g, 소금·후춧가루 조금씩, 풋고추·붉은고추 1개씩, 굵은 파 1/3뿌리, 다진마늘 1/2 작은술, 참기름 1/4 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명란젓 칼집 넣기 : 맑은 물에 가볍게 행군 후 1cm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3~4cm 길이로 자른다.
- ② 쇠고기·두부·채소 썰기 : 쇠고기는 알파라 하게 썰고, 풋고추·붉은고추·굵은 파는 어슷썬다.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 한다.
- ③ 육수 끓이기 : 냄비에 3~4컵 정도의 물을 붓고 끓으면 얇게 썬 쇠고기를 넣어 끓인다.
- ④ 두부·명란 넣고 끓이기 : 고기가 반쯤 익으면 두부와 명란젓을 차례로 넣고 끓인다.
- ⑤ 소금·후춧가루로 간하기 : 명란과 두부가 익어서 떠오르면 어슷썬 풋고추·붉은고추·굵은 파를 넣고 끓이다가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맛을 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8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항구에서 "3,050톤의 질산암모늄 폭발 발견"

- 다카르 항구는 위험물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해 폭발 위협을 받고 있다. 베이루트 항구(레바논)에서 폭발한 2,700여톤보다 많은

3,050톤의 질산암모늄이 3번 항구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 위험한 제품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환경 및 발달 개발부 승인이 필요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모두 비상사태라며 이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세네갈 정부나 국민들 모두 주변국 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특히 8월 들어서 세네갈 정부는 그 어떠한 대응책도 내 놓지 못한 채, 기존 대응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신고 되거나 발견된 의심 환자나 확진자 치료에 전념하는 추세이다.
- 현재도 정부에서는 공항을 통제하고 선박을 통제하고 차량, 상점, 학교, 종교 시설 등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적극적이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 이는 경제적인 문제, 열악한 의료 환경, 국민들에 대한 통제 실패와 주변국들의 대처 상황과 맞물려 현재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추후 우기철이

끝나면 점차 기온이 떨어져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 9월 3일 기준 총 감염자 13,826명, 완치 9,553명, 사망 288명, 격리 치료 3,985명
- 국제선 공항 폐쇄(3.31) 이후 7월 15일에 운항이 재개되었다. 한국까지 운항하는 항공사는 에티오피아, 에어프랑스로 파악된다.
- 항만도 공항과 동일하게 폐쇄하고 재개되었다. 단 화물선 및 어선은 입출항에 대해 변경 사항이 없었고 세네갈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요구 받고 있다.
- 각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로컬 어선에 대한 격일제 출항을 지시하거나 일요일 출항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재는 로컬 어선에 대한 일요일 출항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다. 선원묘지 관리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공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선원묘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하다.
- 우기(7~9월)가 끝나고 10월 경(추석 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 및 별초를 할 예정이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190	
	7.5~2 lbs	1,140	
	4~7.5 lbs	1,040	
눈다랑어	20 lbs 상	1,090	
	7.5~2 lbs	1,090	
	4~7.5 lbs	1,040	
가다랑어	7.5 lbs 상	1,090	
	4~7.5 lbs	1,040	
	3~4 lbs	89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37 유로 / MT	'20.6.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조업 동향

- 연승어업 독항 및 소형 기지선은 남태평양 거의 전지역에서 계속되는 저조한 어획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 피지해역은 빙장횃감의 수출 불가로 알바코 어업으로 전환, 일부 피지 남부수역 및 통가 접경 수역에서 일 평균 1~1.2톤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나. 선원 묘지 관리

- 현재 수바 선원묘지 피지 한인회 주관으로 축대 및 배수로공사 진행 중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5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79/ kl	'20.9.9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관



변경대
명예해양수산관

- 가. 무허가 어류, 새우 양식장에 벌금 징수 후 면허 발급
- 미얀마 농지 중앙관리센터는 에이커 당 K 20,000- K 30,000(17,000원 ~25,000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인 양식 면허를 발급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 총 38만 에이커의 어류 및 새우 양식장이 공식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전체 50만 에이커의 양식 면적 중에서 12만 에이커 만이 LaNa-39 양식 허가증이 발행되어 가축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2019-2020 어업 수출액 7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

- 상무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산 부문의 수출 수입은 7억 3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5백만 달러 증가했다.
- 올해 회계 기간 동안의 어업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58만톤 이상의 수산물이 외국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수출량은 지난 회계 연도에 비해 7만톤 증가했다.
- 미얀마 수산연맹 (MFF)은 올해 회계 연도에 어업 수출로 8억 달러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미얀마는 생선, 새우, 게 등 수산물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유럽 연합 국가 등 40개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다. 덴마크, 미얀마에 쾌속정 2척 제공

- 수산청장 일행은 7월 16일 메익에 있는 MSC 사무실에서 불법 근해 어업 근절을 위한 덴마크-미얀마 지속 가능한 연안 어업 프로젝트에 따라 제공되는 쾌속정 2척을 받았다.
- 쾌속정은 길이 10.54m, 폭 3.7m로 15명이 승선할 수 있다.
- 덴마크-미얀마 지속 가능한 연안 어업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Rakhine와 Taninthayi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라. 코로나 관련 동향

- 양곤 지역, 특히 Thingangyun 타운에서 코로나 19의 현지 전염 사례가 갑작스럽게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9월 2일부터 양곤의 7개 지역에서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령을 9월 1일 발표했다.
- 이 명령은 또한 Insein, North Okkalapa, Thaketa, Hlaing, Pazundaung 및 Mingaladon 타운십을 포함한다.
- Myint Htwe 보건 스포츠 장관이 서명한 통지서에는 정부 부처, 조직, 회사, 공장 및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마을 주민들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필요한 경우 가구당 한 사람만이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구 당 2명씩 병원에 갈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안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출퇴근하는 차량만 운행을 허용했다.
- 물품 구매 시 운전자 1명과 승객 1명만 허용되고 병원 방문 시 운전자 1명과 승객 2명이 허용된다.
- 9월 3일 현재 미얀마는 COVID-19 1,058건, 사망 6명, 회복 369명을 기록했다.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조업 동향

- 사모아 및 인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에서 연승선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3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없으며 아메리칸 사모아 9월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사-공립 학교는 9월초부터 개학, 모든 공공장소 집회 모임 및 교회 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모든 사업장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스타키스트 참치공장은 제외)
- 모든 항공은 9월 30일까지 연장 중단하며 입국자는 14일 동안 지정한 장소에 격리 조치함.
- 어선 및 운반선은 입항할 수 있으나 사전 정부에 입항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입항 시 조건에 따라 선원은 선박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함.(여객선 입항중단)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Santa Co	가다랑어	라운드	1,50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1.91(gallon)	'20.9.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미국 회사, 뉴질랜드 미역 재배에 300만 달러 투자
 - 뉴질랜드 토종 미역을 소 사료에 첨가하여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계획을 가진 미국 기업 (CH4 글로벌)이 뉴질랜드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 CH4 글로벌은 투자금으로 붉은 미역을 뉴질랜드 스투어트섬 시설에서 대량 재배/생산할 계획이며, 2021년 말까지 미역 첨가물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250	Sea Jho Co.Ltd
	L	2,250	
	M	2,250	
	S	1,9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542/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9.8
	LMFO \$501/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가나 국적 참치 원양어선 AP 703호 한국인 선원 2명 해적에 또 피랍
 - 지난 6월 24일 서부 아프리카 가나만에서 해적에 한국선원 5명이 피랍되어 32일 만에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28일 현지 시간 오전 8시경 가나와 토고 경계선 6마일 가나 측 해상에서 연안 약 100마일 떨어져 가다랑어 어획 중이던 가다랑어 채낚기어선인 AP 703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피랍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전 Frontier때와 마찬가지로 선원들을 납치, 몸값을 요구하는 비슷한 목적으로 어선을 공격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해적의 공격을 받은 AP 703호는 즉각 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해적에 제압 당한 후 3시간 정도 동쪽으로 항해하다 한국선원 2명만 옮겨 태운 후 가나선원 48명이 탄 선박은 내버려두고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하였다.
 - AP703호는 남겨진 가나 선원들이 선박을 몰아가나의 Tema 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 AP 703호는 가나 국적으로 한국인이 투자한 참치 원양어선이며, 다른 합작 원양 참치어선과 마찬가지로 간부 선원들은 모두 한국인 선원이며 일반 선원들은 현지 가나인들로 운항되고 있다.
 - 이미 여러 번 가나의 한인 원양어업에 대하여 명예수사관으로서 보고를 드린 대로 해적이 창궐한다고 해서 5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은 참치 원양어업 기지를 포기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위험 해역이니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기니만 연안국들과 협의하여 불법조업을 감시하는 옵서버를 강제 승선하는 제도와 맥을 같이하여, 무장한 경비 군인들을 연안국 국가에서 책임지고 승선시켜 원양어선들이 안전히 조업할 수 있도록 해적을 직접 방어하게 하거나, 아덴만의 우리 청해부대를 근래에 소말리아 해적 발생 건을 몇 배나 압도하는 기니만으로 옮겨 해적을 퇴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근래 EU와 ICCAT에서 참치선망선과 채낚기선의 협력조업 금지로 전체 채낚기선이 어획량이 50%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매년 1월~3월 간의 참치조업 모라토리엄 기간 중 FAD 조업을 일정 해역이 아닌 대서양 전체 해역으로 올해부터 넓혀 시행하여 모라토리엄 기간 중 대형 참치선망선들의 어획량이 80% 이상 감소하는 등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더하여, 해적의 공격으로 인한 몸값, 어로작업을 중지하는 크나큰 손실을 당하면 자칫 회사가 도산할 수 있고 나아가 오랫동안 정성으로 만들어온 해외 원양어업 기지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협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조속한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제언하는 바이다.

나. 중국 어선 어창 내 암모니아 가스 유출로 사망사고 발생

- 참치 잡이 중국인 투자 수산사인 Africa Star Fisheries사의 참치선망선 Africa Star호에서 통상적인 어창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27세의 Elvis Otto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Fishing Hr. 에서 발생했다.
- 사망자는 선박 청소업을 하는 Jamens사의 인부로서, 참치 선박의 냉매로 쓰이는 암모니아가 담긴

파이프가 파손 폭발하면서 그를 덮쳐 사망한 것 같다고 동료인 Enoch Teye가 진술했다.

- Otto씨는 암모니아에 노출되어 상당량을 흡입한 것으로 보이며 신체에 자상이 남았다.
- 회사 내의 인부들은 중국 선주가 손상된 파이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Ghana Maritime Authority(GMA)에서 기술팀을 현장 파견하여 선주에게 선박의 또 다른 곳에 암모니아 유출 현상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 해경은 목격자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증거가 없다며 선주가 손상된 파이프를 수리하려 했었다는 것은 오직 GMA 기술팀의 전문가적인 결론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했다.
- GMA의 선박 검사 담당 부국장인 Captain Emmanuel Kofi Ankamah도 수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00	
	10kg 하	1,00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8kg 하	1,250	
	1.5kg 하	1,00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515/kl MGO	'20.8.31	육상급유
SK B&T	\$445/kl MGO	'20.8.31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새우 수출 여세를 활용할 시점

- 2020년 전반기(1월~6월) 새우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새우수출시장 강화 기회에 맞추어 국내새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절실하다.
-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 새우 수출량이 116,000톤(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수출액은 95,470만 달러(23.8% 증가)이다.
- 해수부 유통국장 Machmud Sutedja씨에 의하면, 인니새우 수입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주문이 지난해 보다 늘고 있으며 새우 수출 시장이 아직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 해수부는 2019~2024년간 수출액 10억불 증가를 목표로 잡았으나, 2024년도 변경하였다. 새우 주요수출국은 미국(65%), 일본(16%), 중국(5%)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아직 5%미만이다.
- 인도네시아 수산물가공유통사업자 협회장 Budhi Wibowo씨에 의하면, 5월~8월 간은 원료공급 부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6월 이후 원료공급의 감소로 원료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수출가격은 안정적이었다.
- 원료 공급의 감소 원인으로서는 4~5월간의 많은 새우 양식 어가들이 치하를 이식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과 운송수단의 어려움으로 치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 Budhi Wibowo씨는 새우수출시장의 여세를 몰아 새우증산의 정책을 강구하여, 수출시장의 확

대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주장했다.

- 원료공급이 원활하면, 수출시장 확대에 걸림돌 없다. 즉, 국내 원료 가격이 안정되면 인니새우 경쟁력이 수출시장에서 강해질 것이다.
- 인도네시아새우클럽 회장 Iwan Sutanto씨의 견해는 :
 - Vanname종 새우 양식 어가는 지금 새우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모든 사이즈의 새우 가격이 상승하였다.
 - 인도와 에콰도르 같은 경쟁국의 새우 공급이 급감하면서, 인도네시아 새우는 수출시장에서 더욱 입지가 넓어질 기회가 생겼다.
 - 현재 모든 사이즈 새우의 수요가 있으며, 사이즈 간 가격차이도 크지 않다.
 - 인도 및 에콰도르의 공급 감소로 세계시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 국가가 생산을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 2020년8월초의 Vaname종 새우 가격(50미/kg사이즈)이 Rp. 75,000~ Rp. 78,000/kg에 달했다. Covid-19사태 전 가격은 Rp. 65,000였다. 100미/kg사이즈 가격도 Rp. 60,000/kg로 치솟았다.
 - 인니 새우 생산은 서서히 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
 - 새우 생산량을 늘리는 방책으로는 기술협력, 고품질의 치하확보, 사료문제, 질병관리 등 이라고 말했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3월 12일 첫 공식 확진자 발생
- 9월 8일까지 누적확진자수 200,035명 돌파
- 1일 2~3만명의 PCR 검사능력



- 현재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이며,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9월 9일에는 1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기록인 3,861명 발생
- 36개 주 중 자카르타가 누적 확진자수 최다이며, 8월말 이후 매일 약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Anies 자카르타 주지사는 현재 자카르타에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9월 14일부터 제2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 실시를 발표함.

다. Lobstar 치어 수출 정책이 Edhy 장관의 수산 정책에 논란을 키우고 있음

- 전임 해수부장관 Susi의 자원보호 정책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Edhy Prabowo 신임 장관은 그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Lobstar 치어 수출을 재개하여 30여개 업체에 수출 허가를 하며, Lobstar 치어수출을 독려하는 형세이다.
- Lobsar 양식 업계를 중심으로 치어 수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학계 및 여러 분야에 퍼지고 있는 실정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Lobstar 치어 수출 대상 국가가 주변 수산분야 경쟁 국가이며, 특히 베트남이 최대 수입국으로 치어 수출이 부메랑이 되어 국내 Lobstar 양식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7월 16일 해양수산물부 내 실장급 고위관료 2명이 Edhy 장관의 정책에 이견을 보여,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Edhy 장관은 전혀 정책변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일련의 사태에 대한 Edhy 장관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0년 PERU 중·북부 수역 1차 멸치 (ANCHOVETA) 조업시즌 종료

- 조업 수역 : 페루-에콰도르 국경 수역에서 남위 16도선까지
- 총 허용 어획량 : 2,413,000 톤
- 조업기간 : 5월 13일 부터 8월 15일까지
- 총 양륙량 : 2,363,858 톤. 총 어획 허용량의 98% 소진됨
- 주 양륙항구 : BAYORVAR, MALABRIGO, CHIMBOTE, CALLAO.
- 조업 선박 : 540척 (목선 313척, 철선 227척)

나. 2020년 PERU 수역의 BONITO 총 허용 어획량 증량 발표

- 2020년 BONITO(태평양 가다랑어. *Sarda chiliensis chiliensis*) TAC를 4월에 76,000톤으로 공시했으나, 9월 3일 페루 생산부에서 1만 2천톤을 증량, 88,000톤을 총 허용 어획량으로 공시했다.

다. 코로나 동향

- 8.27 정부 발표로 비상사태가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 외출과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22시-04시)되었으며 일요일은 필수업종 종사자 외에는 전면 통행금지 시행중이다.



- 9월 4일 페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676,848명, 사망 29,554명. 8월 6일 부터 확진자 1일 평균은 7,381명, 사망자 1일 평균은 304명. 인근 중남미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에서도 확진자 증가 추세이다.
- 9월 4일, 페루 교통부 장관이 국제선 항공편을 10월 1일 부터 운항 재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칠레, 브라질, 멕시코, 미국, 스페인 등 5개국부터 운항 시작하되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 임시 항공편(9.24까지)은 9월 15일, 9월 17일에

리마 출발 - 미국 마이애미항 2편 있음.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에 리마 출발 - 네델란드 암스테르담항 3편 출발 공시되었다.

- KLM 항공사에서는 7월 16일 부터 매주 목요일 1편씩 운항중.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권 선원들 귀국시 이용하고 있음.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23 / 갤런 MDO	'20.7.6





올해 중서부태평양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상반기 조업 상황 좋지 않아, 하반기 만회 어려울 듯

올해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조업 상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상반기(209만 4,988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선망선들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약 19톤으로 지난해 1월 27톤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일일 어획량은 20톤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7톤 정도 감소했다. 2019년 일일 어획량은 월초부터 계속 증가해 5월에 거의 45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했지만 11월까지 25톤 수준을 유지했다.

가다랑어와 달리, 9kg 이상 황다랑어의 평균 일일 어획량은 올해 4월에 5톤을 조금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올해 7월에는 평균 1.5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낮은 수준까지 감소했다. 9월에는 FAD 금지 조치로 소형 황다랑어, 눈다랑어의 어획량이 더욱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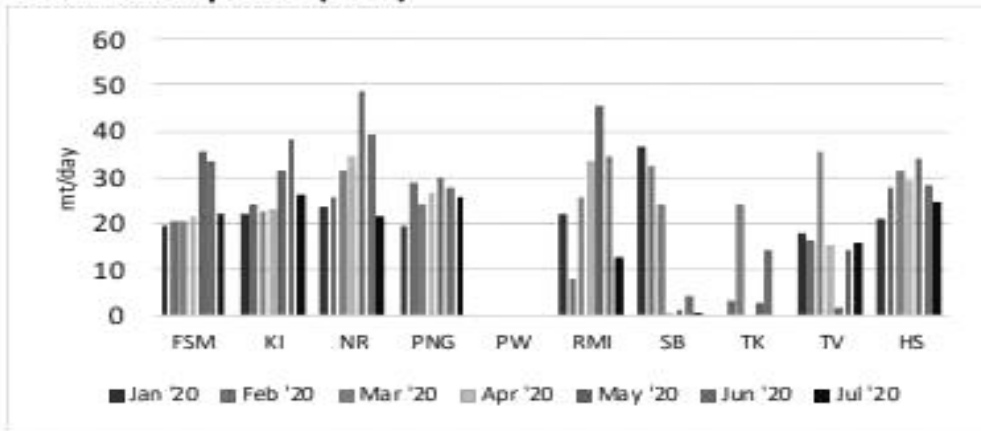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일일 어획량은 2019년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나우루협약당사국(PNA) 회원국들의 EEZ에서도 어획량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마샬 제도는 5월 일일 어획량이 약 45톤이었으나 7월에 10톤 조금 넘는 정도로 감소했다.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도 5, 6월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7월에 크게 감소했다.

과푸아뉴기니 수역과 인근 공해는 일일 20~30톤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몇 년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평균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일반적으로 28톤 정도였지만 PN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모든 선박의 어획량이 5, 6월을 제외하고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Catch rate by zone (EEZs)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7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강세

1,530 달러에 거래, 조업 상황 좋아

지난 몇 주 동안 세이셸 항구에서 참치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가다랑어 가격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주들은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시점인 7월 이전 몇 개월 동안 큰 하락을 겪고 난 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는 톤당 1,300 유로(1,53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6, 7월에는 톤당 850 유로에 거래되었었다. 현재 가다랑어 가격은 방콕 시세(8월말 톤당 1,600 달러)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

냉동 황다랑어 원물은 톤당 약 2,100 유로(2,483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일부는 2,070 유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소수이다.

소식통은 가공공장들이 7월에 가다랑어를 비축하여 현재 재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다. 7월은 대부분의 EU 선박들이 검역 조치로 인해 다시 조업을 나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던 시기였다. 당시 가공공장들은 원자재 부족 위험이 있어 가다랑어를 수매했다.

8월말에 세이셸 해역에서 운항하는 스페인 선박에 승선한 스페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재 출항한 상태이다.

캔 가공공장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가공공장들의 양호한 재고 상태가 영향을 미쳐 항구에서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조업 상황도 좋아 상당한 양의 참치가 세이셸로 하역되고 있다.

하지만 소식통은 장래에 조업 또는 가공 영역에서 언제든지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사업이 일일 단위로 처리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7일자

Tesco, 인도양 황다랑어 최후통첩

자원 회복 계획 수립 전까지 인도양 황다랑어 사용하지 않을 것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상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주요 소매업체인 Tesco는 최근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효과적인 참치 자원 회복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자사 상표 제품에 인도양 황다랑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Tesco는 다가오는 11월 IOTC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월 3일에 배포된 의제 초안을 보면 IOTC는 보존관리조치(CMMs)에 대한 재협상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보존관리조치와 새로운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Tesco의 영국 시장 점유율이 27%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소매 업체가 Tesco의 정책에 따라갈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8일자



태평양 가다랑어 어가 강세 1,600 달러에 거래, 상승 전망

방콕 가다랑어 어가는 8월초에 관찰되었던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tuna는 2주 전에 가다랑어 어가가 지난 몇 년 동안 관측되었던 추세(FAD 금지 기간 동안 상승하여 8월 또는 9월경에 정점에 도달)와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냉동 가다랑어 원물 가격은 톤당 1,575 달러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가다랑어가 톤당 1,600 달러 이상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태국의 한 가공업자는 스쿨 조업 가다랑어 구입을 위해서는 톤당 50 달러가 더 필요하며 채낀기로 어획된 가다랑

어는 톤당 1,80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운송 물량이 이미 더 높은 수준인 CFR 기준 톤당 1,700달러에 거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평양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들은 FAD 금지 기간 동안 어획량이 실망스러워 걱정하고 있다. 한 항만 운영자는 작년에 비해 양륙량이 40% 감소했다고 한다. PNA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에서 선박들은 키리바시에서 먼 파푸아뉴기니에서 가까운 서쪽에서 조업하고 있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25일자

태국 냉동 가다랑어 수입, 5년 내 최저

2019년 재고 영향, 마이크로네시아, PNG, 미국 수출 감소

태국 캔 가공업자들이 비정상적인 사업 성장을 경험한 기간에 냉동 가다랑어 수입은 상당히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방콕 가다랑어 수입량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태국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냉동 가다랑어 원물 수입량은 총 20만 8,07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2016년 상반기 수입량이 25만톤을 넘어서 가장 많았으며 그 후 연마다 변동이 있었다. 올해 가다랑어 CFR 평균 가격은 톤당 1,206 달러로 2019년에 비해 톤당 170 달러, 2018년에 비해 401 달러 낮았다. 태국 수입업자가 가다랑어를 적게 수입했다는 것이 최종 제품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참치 수요는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참치캔 생산량은 29만 81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미국에서 참치캔과 같이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물품을 비축

하는 소비자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결과였다.

올해 상반기에 가다랑어 원물 수입이 감소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몇몇 주요 수출국,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미국은 작년의 절반 정도만 수출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2018년 이후로 원물 공급이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나우루는 공급을 늘려 각각 1만 872톤, 1만 438톤을 수출했다. 바누아투는 2018, 2019년에 수출량이 없었지만 올해는 2만 1,158톤을 수출했다.

또한 가공업자들은 작년에 넘어온 가다랑어 원물 재고가 있어 구매 필요성이 낮았을 수 있다.

태국 가공공장들은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평상시보다 20~25% 많은 12만 3,800톤을 매집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만 2,060톤, 10만 3,255톤을 매집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18일자



日,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제안 논의 일본 수산청, 웹 설명회 개최, 12개 시나리오 제시

일본 수산청은 8월 21일 연내에 예정되어 있는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 제16 회 북소위원회를 대비해 어업자 등을 위한 설명회를 웹에서 실시했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평가 결과와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WCPFC에서 쿼터 증량 제안을 할 방침을 나타냈다. 어업자들로부터는 수산청의 정책에 찬성하는 형태로 쿼터 증가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산 연구·교육기구 담당자가 올해 북태평양 다랑어류 국제 과학위원회 (ISC)에서의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소형어(0~2 세어)의 어획 사망 압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소형어의 어획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원 관리 조치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최근 3년 사이 소형어의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친어의 예비군이 되는 약령어(若齡魚)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 성어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수산청에서는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소형어나 대형어 어획량을 늘렸을 경우에 장래의 자원량이 어떻게 증감할까 추산한 1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WCPFC가 제시하는 2024년의 잠정 회복 목표(친어 자원량 약 4만톤)와 2034년의 차기 회복 목표(친어 자원량 약 13만톤)에 대한 달성 확률을 나타내며, 두 증량

시나리오 모두 잠정 회복 목표는 99%이상, 차기 회복 목표는 91% 이상이 되었다. 다만 이번 자원 평가에서 자연계에서의 0세어 가입이 2017년, 2018년의 두 해는 낮은 가입 수준이라고 판명되어 쿼터 증가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환경 단체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했다.

어업자들로부터는 『목표 달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쿼터 증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하라』고 요청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WCPFC에서 대만이 일본에 대형어의 어획량 상한을 300톤 분 이양한 것에 대해 일본 수산청은 『대만 내에서 일본에 양도한 데 비판이 있는 데다 올해는 대만이 대형어를 많이 잡고 있다. 솔직히 (앞으로도 이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렵지만 계속 대만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WCPFC 북소위원회는 웹 회의에서 10월 초순 무렵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 일본이 쿼터 증가 제안을 하기 전에 수산청은 어떤 시나리오의 쿼터 증가를 보여줄 지 등에 대해 어업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단, 도서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주장하는 ‘쿼터 증가 등의 복잡한 논의가 되면 웹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연내 쿼터 증가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고 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4일자, 일본수산경제신문 2020년 8월 24일자

참다랑어 새로운 자원평가 결과(장래 예측 시나리오)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잠정 회복 목표 달성 확률
	소형어	대형어		
0	증가 없음		증가 없음	100%
1	모두(소형어, 대형어) + 5%		+ 5%	100%
2	모두(소형어, 대형어) + 10%		+ 10%	100%
3	모두(소형어, 대형어) + 15%		+ 15%	99%
4	모두(소형어, 대형어) + 20%		+ 20%	99%
5	증가 없음	+ 500톤	+ 500톤	100%
6	증가 없음	+ 600톤	+ 400톤	100%
7	증가 없음	+ 1,650톤	+ 660톤	99%
8	+ 125톤	+ 375톤	+ 550톤	100%
9	+ 250톤	+ 250톤	+ 500톤	100%
10	+5%	+ 1,000톤	+ 500톤	100%
11	+5%	+ 1,300톤	+ 700톤	99%
12	+10%	+ 1,300톤	+ 700톤	99%

* 자료 : ISC 참다랑어 자원평가보고서(2020년)에 따라 일본 수산청이 작성



일본 냉동 가다랑어 포 용 원료 강세

소형 중심, 국제 시세 상승

일본 국내 포·통조림용 냉동 가다랑어 가격은 국제 시세 상승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 아이즈어협이 해외 선망 브라인 동결품(B)은 8월 27일 현재 2.5kg 상이 전월 대비 25% 상승한 kg 당 175~170 엔, 1.8kg 상은 14% 상승한 kg 당 152~160 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로 나오는 시세와 일본 국내 시세의 차이는 거의 없고, 경매에는 수출업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어선은 보통 같은 수준의 어획을 보이거나 나온 어획 추세를 보이지만 어획은 소형어가 중심이다. 게다가 잡히는 생선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품질이 포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중서부 태평양 등에서 FADs에 의한 조업 금

지에 들어가 원어 부족으로 국제 시세는 상승했다. 국제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일본 국내 시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항구 경매에는 무역 상사 및 수출업자도 참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국내의 포 제조업체는 『포 용이 아닌 품질의 가다랑어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공하기 어려운 비교적 저렴한 소형 사이즈인 1.8kg 아래를 살 수밖에 없다』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해외 선망어선에 의한 어획량은 소형 사이즈가 중심이기 때문에 생식용 브라인 동결 선별 품(PS) 어획량은 적다. 다다키 제조업체는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세계 첫 MSC 참다랑어 도요스시장 상장

6,800 엔 당일 최고가에 경매 낙찰

도쿄 도요스시장 참치 도매시장에서 1일 해양 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은 대서양 참다랑어 1마리 142kg이 첫 상장되었다.

원양 참치연승어선 7척을 보유한 (주)臼福本店(臼井壯太朗 사장)이 이전 어기 어획 냉동 보관 중이던 것 중 1마리로 전날에 비해 kg 당 2,600 엔 높게 이날 최고치인 6,800 엔으로 거래가 성립되었다.

MSC 대서양 참다랑어가 판매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MSC 대서양 참다랑어로는 (주)臼福本店을 화주로 출하된 것으로 第一水産(주)(田口弘之 사장)가 상장했다. 참치 전문 도매시장인 大花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9월 2일자



태평양 참치 어업 코로나19 지침 도입

선박 내 생활, 항구 입항·전재 등 어업 활동 시 방역 관련 내용 담아

태평양 지역 참치 어업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운영 프로토콜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공통된 규칙은 없었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지역 당국, 선장, 선원 간의 토론 및 언쟁이 있었다. 이번에 여러 기관에서 모인 전문가 그룹이 핸드북을 개발했으며 태평양수산위원회(FFA) 사무국이 동 핸드북을 배포했다.

핸드북(지침)은 선박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선원, 항만 노동자, 당국, 기술자 등)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일반적인 코로나19 위험 완화 프로토콜(예: 적절한 손 위생 및 올바른 기침 및 재채기 예의), 일상적인 어업 작업 과정에서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코로나19 위험 완화 및 통제 프로토콜,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비누와 물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최소 1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은 개인위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선실 및 거주 공간, 휴게실 선반, 다른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선박 내 표면은 소독제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닦아야 한다. 두 번째 범주의 경우, 선박 입항, 검사에서부터 전재 및 주부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항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있어 감염 완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한다.

어선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조치 사항들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선장은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선박 국적국, 연안국, 항만국의 보건 당국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염자는 격리되어야 하고 감염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선망선과 연승선 선원들은 선박의 공동 구역에서 항상 의료용 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구 및 장비를 다룰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PNA사무소, 태평양사무소, 남태평양위원회, 보건 안보 인도-태평양 센터, MRAG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산 코로나19 프로토콜 운영 위원회(Fisheries COVID-19 Protocols Steering Committee)가 이 지침을 개발했으며 태평양수산위원회 회원국, 태평양 어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수산 코로나19 프로토콜 운영 위원회는 조만간 선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절차도와 인포그래픽을 개발할 계획이며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전달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25일자

세이셸에서 스페인 선원 코로나19 양성 반응

3명 양성 반응, 선박에 격리

세이셸 해역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참치 선망선에 승선한 선원 3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세이셸 공중보건 국장은 감염자를 격리 조치 했으며 감염자와 접촉한 선원들은 다른 선박에 격리했다고 알렸다.

올해 6월 스페인 참치 선박의 선원 교대를 위해 세이셸에 입국한 70명 이상의 선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었다. 그 결과 선망선 20척 이상이 항구에 대기하며 어업을 중단했어야 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26일자



신선 가다랑어 케센누마 60% 감소, 2,000톤 이하 1~ 28일 소형 중심 양륙

일본 신선 일본조어업 가다랑어 어획이 부진하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8월 1~28일의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2,932.3톤이다.

일본 동북 연안에 어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1마리 2kg 이하의 소형 사이즈가 중심이다. 5kg 이상 특대 사이즈의 어획량도 있지만 예년 7~8월에 어획하는 중형 사이즈는 거의 어획되지 않아 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주요 어항인 미야기·케센누마의 어획량은 62% 감소한 1,925.6톤으로 전년을 크게 밀돌았다.

사이즈 조성은 1.8kg 이하의 소형이 60%를 차지한다. 중간이 없고 소형 및 대형에 치우치는 것은 『최근 수년간에는 없었던 움직임』이라고 일본 어업

정보 서비스센터 측은 밝혔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산지 평균 가격은 kg 당 314 엔으로 전년의 2배 가까이로 올랐다.

어장은 전년 동월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만 『전년만큼 북상하고 있지 않다』고 센터 측은 말했다.

어장 수온은 25도 전후다. 소형이면서도 어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센터 측은 『당분간은 동북 연안에서 조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년에는 9월 중순 이후에 지방질이 많은 『반환(모도리) 가다랑어』가 잡히지만 올해는 소형 중심의 어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적고 단백질 품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센터 측은 예측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일본 에히메현 츠지수산, AEL 취득

참다랑어와 스마 생산 단계 인증과 유통 가공 단계 인증

생선과 활어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 츠지수산(에히메현 우와지마시)은 최근 참다랑어와 스마(지명) 생산 단계 인증과 유통 가공 단계 인증으로 양식 환경 마크(AEL)를 취득했다.

인증 심사에서는 양식장의 환경 정비와 철차에 따른 종묘 및 사육 관리 등을 심사 기관인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로부터 평가 받았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매우 기쁘다. 다른 어종에서도 인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EL은 양식 수산물의 안심 안전의 확보와 발

전하는 친환경 양식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본식육자협회가 2014년 2월에 출범시켰다.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정기관인 수산자원회복관리지원회가 인정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8월 3일부터 5년이다. 9월 4일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에서 인증 증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으로 생산 단계 인증은 총 44건, 유통 가공 단계 인증은 총 69건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포클랜드 회사 트롤선 신조

내년 1월 로리고 조업시즌부터 투입될 예정

포클랜드 국적 신조선이 스페인 소재 Nodosa 조선소에서 진수되었다.

이번에 진수된 Falcon선은 포클랜드 회사인 Fortuna사와 스페인 Vigo 소재의 Pescapuerta Group의 합작 회사인 Petrel Fishing Company 소유로 전장 75m, 폭 14m이다. Falcon선은 오징어 어업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Falcon선은 올해 11월에 소유주에게 인도되어 내년 1월 로리고 조업 시즌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9월 3일

日 신선 살오징어 8월 조업 10% 감소한 3,200톤 오징어어업 정보서비스센터 어황 정보부, 어군 복상 지연 홋카이도 저조

신선 오징어의 홋카이도 어장 복상이 예년보다 늦어질 기색이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의 주요 어장은 야마가타현 연안~니가타·사도이다. 예년 8월이면 홋카이도 서안에 서 어느 정도 어획이 되지만 올해는 거의 어획이 되지 않았다.

이 센터에 따르면 8월 전국 주요 항구의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3,174톤으로 감소했지만 평균 위판가격도 7% 하락한 499 엔으로 전년을 하회했다. 특히 홋카이도 히야마 어획량은 87% 감소한 21톤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가나자와는 약 4.4 배인 458톤으로 급증

했다. 2015년 이후 8월에 동향의 어획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어법은 소형 오징어어업이 중심이었다. 중심 사이즈는 1마리 160~200g 정도이지만 8월 하순경부터 250g 정도의 것도 많아졌다.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 해양예보에 따르면 동해에서 홋카이도의 살오징어 내유량은(8~12월)은 『전년을 상회』다. 이 센터는 『8월 하순은 사도~야마가타현에 어장이 붙어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9월 이후 홋카이도 서안에 어장이 형성되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일본 선망 어선 오징어 어획 상황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항구 1% 감소에 회복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항구에서 선망 어선에 의한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이 증가되었다. 첫 어획이 있었던 7월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의 누계는 전년 대비 32% 감소로 크게 침체되어 있었지만 이달 19일 고등어 혼획 356톤으로 금기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다.

첫 어획부터 20일 현재까지의 누계는 83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까지 회복했다. 8월 21일도 혼획 상태로 102톤을 어획했다. 앞으로도 수십톤에서 수백 톤의 어획이 계속될 전망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산리쿠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대형 선망 어선의 조업은 지난달 27일 해금, 같은 달 31일에 하치노헤 항구에 오징어 145톤을 첫 어획했다. 이후 연일 조업선이 들어왔다. 주요 어장은 아오모리현 미사와시, 하치노헤시 앞바다에서 18~20 통이 조업하고 있다. 크기는 1마리 150g 소형을 중심으로

200~250g 중대형도 섞여있다.

방어는 8월 19일 10kg 1,689~5,350 엔, 8월 20일 1,486~5310 엔이었다. 하치노헤시의 집계에 따르면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평균 가격은 10kg 4,790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높다고 한다.

하치노헤 어시장 담당자에 따르면 『동해 대화퇴와 무사시퇴 주변에서 현재 조업 중인 선동 선에 의한 신물 냉동 살오징어 어획량이 아직 없는 가운데 냉동 살오징어 전반적인 월년(越年)재고도 없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공장용 매수가 많았다. 생선회용이 되는 중대형 사이즈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향이지만, 가공용이 되는 150g 전후의 소형 사이즈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산리쿠 해역 선망선에 의한 살오징어 조업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4일자

일본 살오징어 분포량 전년 미달

동해 중앙부 이시카와현 8월 조사

일본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는 8월 18~27일에 걸쳐 조사선 白山丸에 의한 살오징어 분포량 등을 조사했다.

노토 반도 해안부터 동해 중앙부(대화퇴 주변) 근해 해역에서 살오징어 조업을 실시했다.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는 『정점조사(定点調査)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뒤 『올해 8월 동해 중앙부의 분포량은 전년 및 지난 5년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퇴 주변 살오징어는 분포 밀도 지표인 어업 기계 1대 1시간 당 어획량 마리 수를 나타내는 CPUE가 2.6~17.9 마리. 이 해역의 평균 CPUE는 10 마리로 전년 동기의 21.7 마리, 지난 5년간 평균 18.1 마리를 모두 밑돌았다. 오징어의 어체 크기 지표가 되는 외투장 길이 평균치는 19.2cm. 전년 20cm와 지난 5년간 평균 21.1cm를 밑돌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일본 명태 MSY 이견

日 수산청 새 정책에 동해 북부 자원 어업자들 이견 많아

일본 수산청은 8월 20, 21일 이틀간 삿포로 홋카이도의 명태, 대게의 2021년도 총 허용어획량(TAC) 설정에 대해 새로운 자원 관리 정책 검토위원회를 열었다.

12월 시행 개정 어업법으로 채용하는 최대 지속생산량(MSY)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자원 관리 및 현재의 자원 평가에 대해 도내 계통 단체와 어협, 연구 기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인 명태 동해 북부 계군에 대해 도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자원 관리 의견이 잇따랐다. 명태는 오호츠크 하이난부, 쿠나시르 해협, 동해 북부, 태평양의 4개 자원, 대게는 홋카이도 서부, 오호츠크 하이난부의 2개 자원에 대한 어획 시나리오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TAC는 최소 성어 자원량의 유지·관리를 목표로 여러 어획 시나리오에서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을 이끌어내 설정했다.

새로운 자원 관리는 지속적으로 어획 가능한 최대의 어획량(MSY)의 달성을 목표 관리 기준치로 달성 확률과 기간에 맞는 하나의 어획 시나리오에서 ABC를 산출해 TAC를 설정한다. 시나리오는 5년마다 검토한다. 또한 남획 방지를 위한 한계 관리 기준치를 밀돌 경우, 자원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어획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출 금어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이 제시한 방안은 명태 동해 북부 계군(2018년 친어량 50,000톤)의 경우 한계 관리 기준치를 부모 물고기 양 17.1만톤, 목표 관리 기준치를 친어량 38.2만톤으로 10년 후에는 50% 이상의 확률로 목표 관리 기준치 이상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동 태평양 계군(2018년 친어량 27.1만톤)은 한계 관리 기준치를 친어량 15.1만톤, 목표 관리 기준치를 친어량 22만톤으로 10년 후에는 50% 이상의 확

률로 목표 관리 기준치 이상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동해 북부 친어량은 한계 관리 기준치를 크게 밀돌고 있어 자원 재건 계획 대상이다. 비록 금어를 해도 10년 후에 친어량이 목표 관리 값을 상회할 확률은 18%로 어려운 전망, 중간 관리 기준치(예를 들어 한계 관리 기준치 17.1만톤)를 마련하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원 관리 계획의 최종 연한은 향후 검토 과제로 했다.

한편, 태평양 계군은 친어량이 목표 관리 기준치 이상이고, 10년 후에도 50% 이상의 확률로 상회하는 어획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참석자들로부터는 특히 명태 동해 북부 계군에 대한 이견이 잇따라, 『데이터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 계획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일정 기간 어획 압력을 고정하는 등 별도 쿼터로 생각하는 행정 판단도 필요(도립 종합 연구기구). MSY의 높은 목표 설정은 어업자의 생활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의 자발적인 자원 관리를 없애지 말라(道漁連)』 등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수산청의 카미야 타카시 차장은 『과격적인 자원 평가를 했다. MSY를 사용하여 자원 관리를 해나가는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과정이다. 명태 동해 북부는 자원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다가올 10년으로 한계 관리 기준치를 달성하는 목표를 향해 어획 변동을 억제하는 아이디어를 행정 및 어업 관계자 등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싶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일본 수산청은 2019년도 자원 평가 결과 공표 후 10월에 2차 검토회를 열고 각 어종의 자원 관리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5일자



콩치 2019년 수입 30% 증가한 6,400톤, 거의 대만産 소형은 수출, 흥어 심각 수요 국가 간 유통

콩치는 북태평양을 대표하는 수산 자원이다. 생산국은 자국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일본과 러시아이다. 대만, 중국, 한국은 공해를 메인으로 타국 수역 입어료를 지불하여 잡기도 한다. 수요국은 앞서 언급한 5개국 외에도 최근에는 동남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콩치어업은 최근 흥어가 계속되어 2019년 어획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4만 500 톤으로 50년만에 흥어 기록을 갈아치웠다.

북태평양의 콩치 자원 감소는 심각해 어느 생산국도 자국 수요를 조달하지 못하고, 각각의 시장에 알맞은 콩치를 유통하는 구도다.

2019년 일본의 콩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6,369톤으로 거의 대만産이다. 공해 조업 하루 길이에 있는 대만은 자국용 외로 한국과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분을 수입한다. 연간 평균 단가(C&F kg 당)는 174 엔. 월 평균 300 엔 전후인 때도 있고, 좋은 품질은 한 세

대 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2020년 1~7월의 수입량은 1,042톤(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평균 단가는 217 엔(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으로 추산된다.

한편 일본은 수출도 한다. 2019년 7,500톤, 2018년 8,500톤으로 수요국은 러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이 많다. 연간 평균 단가(FOB kg 당)는 100 엔 대 전반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신선은 커녕 가공 원료도 사용하기 어려운 소형 콩치가 주로 통조림용 원료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콩치 캔 수요국이다. 태국이나 베트남 용은 자국 소비도 있겠지만 수요국 용 제품 가공 원료로 반입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데이터 버전에서 자세한 데이터 제공.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documents/dc2/11>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3일자





일본 신선 콩치 수령에서 탈출 도요스 시장, 센다이에서 올해 최대 입찰

전년 대비 몇 퍼센트라는 극심히 나쁜 조업 양상이 알려졌던 신선 콩치 조업은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서 8월 28일 64톤을 필두로 하루 20~30톤까지 집하된 것을 바탕으로 소비지에서의 출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쿄 도요스 시장과 미야기·센다이 시장 등에서 올해 최대 입하를 갱신했다. 수령에서 벗어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판매 면에서는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쿄 도요스 시장은 8월 29일에 6,919 상자, 휴장이 끝난 8월 31일에 7,775 상자와 7,000 상자 전후의 입하가 이틀 정도 계속 되었다.

8월 27일까지는 2분의 1 이하인 수백 상자에 그친 만큼 입하 수준 회복은 분명했다.

대기업 양판점, 슈퍼가 움직여 그 판로에 강한 도매로 입하 수가 크게 편중되었지만 일단 메말랐던 슈퍼를 운택하게 했다.

하지만 인기 있는 한 마리 120g 이상 사이즈는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다.

도매는 말단 판매가가 한 마리 398 엔의 가격대로 『공해에서의 2~3일 야간 조업을 하여 한 척 당 6~7톤 어획하는 데 그칠 만큼 어군이 얇다. 본토까지 왕복에 4일 낮밤이 걸릴 만큼 주어장이 멀리 있다』고 어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도저히 최성기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지 어획이 끊기지 않고 20~30톤씩 있는 것이 고마울 뿐이라고 한다.

센다이 시장에서도 최저 수준이지만 집하가 되기 시작, 지난 주말인 8월 29일에는 올해 최대인 1.8톤이 입하되었다.

전반적으로 작은 것도 있고, 시장 관계자에게 웃는 얼굴은 없었지만 극도의 흥어로 『당장은 입고 조차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었던 만큼 목소리에는 약간의 안도감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8월 29일에는 2kg 상자가 중심인 仙都魚類가 500 상자, 仙台水産이 400 상자를 판매했다. 사이즈는 한 마리 110~120g이 중심으로 중매인은 매우 작다. 선어로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경매 및 개별 거래 결과 kg 당 1,500~3,500 엔에서 거래되었다. 중간 시세는 1,800~2,000 엔이었으며, 선어 판매는 높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도 입하가 향상된 데 따라 현지 양판점은 이날부터 잇따라 취급을 시작했다.

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문을 억제해 한 마리 298 엔으로 수매에 나선 점포는 다소 거래가 되었었지만 결과는 대체로 『너무 생각 않고 샀다』는 반응이었다. 주초 월말인 8월 31일에도 2kg 상자 중심으로 총 1.4톤이 입하되었다. 가격은 750~3,500 엔, 중간 시세는 1,500~2,500 엔이었다.

이후에도 『산지의 어획량에 달렸지만 계속적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9월 1일자





일본 콩치 8월 조업 90% 감소 가능성 대형 어선 양륙량 심각한 흉어로 현실화 우려

콩치는 지난 주 후반에 대형 어선(100톤 이상 봉수망어선, 20일 해금)의 1항차 어획이 이뤄졌다. 어장은 연안 공해로 어군은 얇고 8월의 추산 어획량은 전년 동월의 80~9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흉어가 현실화될 것 같다.

장관 허가 사항인 콩치봉수망어업은 8월 10일 해금인 소형 어선(10톤 이상 20톤 미만)이 러시아 해역에 출어했지만 어획이 없었다. 15일 해금된 중형(2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도 앓케시 선단이 극히 경미하게 어획했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전혀 어획을 못하고 귀항했다. 기대를 모았던 대형 어선은 26~29일에 걸쳐 네무로 하나사키항에 양륙했다.

27일에는 8척 분 약 40톤(신선, 벌크, 스티로폼 상자, 냉동 포함), 28일에는 25척 분 약 80톤(신선, 벌크, 스티로폼 상자, 냉동 포함)에 그쳤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어장은 하나사키항에서 동북동 1,400킬로 미터 떨어진 공해에 형성되어 있다. 산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일 반 가량 걸려 어장에 도착하고 2~3일 야간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군은 지난해보다 얇고 냉동 설비가 있는 어선은 처음에 잡은 콩치를 동결하고, 2일째 밤이나 돌아오는 길에 잡은 콩치는 신선 상태로 가지고 간다.

단 선창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 아닌 것도 많아, 선상에서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해 양륙하기도 한다. 어획물은 평균 3~4톤 정도다. 7톤을 잡은 어선도 있다고는 해도, 1톤 전후에 머무른 어선이 많다.

『어장이 멀고, 어군도 얇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황이 나쁘다』 고 산지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본 시사통신사의 양륙 정보 집계에 따르면 콩치 봉수망어업 해금 이후 콩치 어획량은 8월 29일 시점 추산이 145톤(신선, 벌크, 스티로폼 상자, 냉동 포함)으로 전년 동기 대비(1,000톤) 85%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흉어가 시작되고 있다.

어체는 8월 28일 판매된 스티로폼 상자에서 1마리 130~140g 우량품도 산발적으로 발견되었지만 100g 전후가 중심이다.

산지 시세는 탱크(400~500kg)로 받는 벌크 대단위 시세로 kg 1,000~1500 엔이 중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배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형 어선 정어리 조업 연장으로 구제>

대형 어선은 다시 공해상을 향해했지만 도내 중 소형 어선의 대부분은 콩치 어황을 관망하면서 연안에서 정어리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콩치 흉어 대책으로 확충된 정어리 자원의 연안 이용으로 소형 어선의 조업 기간은 8월 10일~9월 30일이다. 또한 중형 어선은 당초 8월 1~31일이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콩치 흉어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 지난 주말에 9월 20일까지 연장이 결정됐다고 도 어업관리과 관계자는 밝혔다.

콩치는 어획이 호전이 되지 않는 한 9월 초 무렵까지는 대형 어선에 의한 지지부진한 어획이 이뤄질 것 같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센다이시장에서 콩치 판매 경쟁 시작

이번 어기 가장 많은 봉수망 어획물 1.8톤 입하

일본 센다이시장(센다이시)에서 지난 8월 29일 올해 최다인 홋카이도산 신선 콩치 1.8톤이 입하되었다. 8월 26일 홋카이도 하나사키 항 대형 봉수망 어선(100톤 이상)이 첫 입항, 이번 어기 가장 많은 어획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입하량이 집계되었다.

중앙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수준인 kg 당 1,600~2000 엔. 전날인 8월 28일의 6,000~8000 엔에서 대폭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고, 현 내 양판점에서 생 콩치 판매가 시작되었다. 미야기 지역의 생 콩치 판매 경쟁은 예년의 경우 중형 봉수망어선의 출어 및 어획이 시작되는 우란분재(음력 7월 보름, 백중맞이) 새벽부터 이뤄지고, 양판점 매장에서 이 때부터 생 콩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올해는 앞서 시작된 유망, 이어 소형·중형 봉수망의 어획이 극도의 부진을 보여 판매전 시작이 예년보다 2주 늦어졌다. 이날 양판점 매장에서는 1마리가 298~498 엔에 판매되었다. 중심 사이즈는 1마리 110~120g으로 전년 동기 수준이다. 작년과 같이 소형 중심의 조성을 보이고 있다.

1마리 100g 미만의 "자미(쓸모 없이 작은) 사이즈"도 입고되고 있다. 비교적 큰 1마리 140g 이상은 4,000 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어기 가장 많은 어획량이 입고되었지만 절대 수량은 적고, 어획물 포장 모양은 지금도 2kg 판이 중심이다. 다음 입하는 9월 1일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일본 콩치 봉수망 첫 어획 900kg

홋카이도 앓케시 23~24일 kg당 1만 1880엔

일본 중형 어선에 의한 콩치 봉수망 첫 어획이 8월 23일 홋카이도 앓케시정 앓케시항에서 이뤄져 8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앓케시 어업협동조합 지방 도매시장에서 첫 경매가 진행되었다.

8월 23~24일에 걸쳐 4척이 904.5kg(217 상자)을 어획해 kg 당 1만 1,880엔 (소비세 포함)의 좋은 값에 거래되었다.

시세는 130g 이상(3 상자)이 1만 1,880 엔, 120g 이상(43 상자)도 1만 1,880 엔, 110g 이상(114 상자)은 1 만 1,880~7,344 엔이었다.

지난해는 8월 22일에 소형 어선 4척이 첫 어획해 전량 탱크(400~500kg)로 24.6톤이 거래되었고, 가격은 kg 당 2,430~1,436엔이었다.

지난해 8월 22일에는 콩치봉수망에 의한 첫 어획이 있었다. 이날 어획량은 홋카이도 내 네무로 시 하나사키와 앓케시 합계로 40톤이었다. 하나사키의 위판가격은 130g 이상이 4,428~3240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5일자



일본 콩치 재고 5월말

1만톤 깨져 근년 최저, 공해 제로로 더 저하

일본 수산청이 7월말에 발표한 냉동수산물 유통 통계 2020년 5월분에 의하면 일본 전국 주요 냉동 창고의 5월말 시점 냉동 콩치 재고는 9,924톤으로 1만톤 아래로 떨어져 최근 수년 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43% 감소했다.

본 어기 전 전국 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의 공해 콩치 조업이 실적 없이 종료, 어기 초반 내유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획이 본격화 되는 10월 직전까지 최저 기록 갱신이 이어질 것 같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당시 사상 최저를 갱신한 7만 7,169톤 어획으로 끝난 2017년의 다음 해에 일시 재고가 1만톤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다만 8월(9,926톤)만으로 9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 말에는 2만 5,000톤 가까이 회복되었다.

또한 2019년 어획은 사상 최저 기록을 더 갱신한 4만 517톤으로 집계되었다.

시즌 종반인 11월에 재고를 크게 늘렸지만 1만 500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해를 넘긴 것이 고작이었다. 대만 등으로부터의 냉동 수입도 저조해 재고의 점차적인 감소가 계속되었다.

최신 5월 월간 입고량은 1,101톤(25% 감소)으로 전년의 4분의 3 정도다. 월간 재고량도 1,778톤(28% 감소)으로 위축되고 있고, 4월말부터 700톤 줄어든 결과 1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콩치 월말 재고량 추이와 일본 국내 생산량

(단위 : 톤, 10kg 당 엔)

연도	월말재고량												어획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단가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24								(264,000)	-
2019	23,685	22,223	21,205	19,448	18,385	17,228	15,775	13,639	12,416	13,140	14,953	15,014	40,517	3,160
2018	21,143	19,502	16,642	14,051	13,054	11,648	10,606	9,926	11,936	22,473	24,208	24,726	119,930	1,878
2017	26,120	23,674	21,732	17,864	16,444	14,692	12,644	10,964	10,210	14,868	22,343	21,991	77,169	2,776
2016	30,604	28,202	25,803	23,634	21,421	19,597	16,324	13,740	16,661	24,058	30,344	29,914	109,590	2,131
2015	40,125	36,453	32,906	29,838	27,069	24,796	21,603	21,769	21,592	30,446	30,506	32,272	112,264	2,207

* 월말 재고량 추이는 일본수산청 「냉장 수산물 유통 통계」 인용, 어획 상황은 전국 콩치 붕수망어업 협동조합이 발표한 것

* 2020년 어획상황, 수량 264,000톤은 TAC 수치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8월 20일자



일본 쫑치 조업 대형어선 해금 어군 보이지 않아 어려운 환경

일본 쫑치 조업은 8월 20일 주력이 되는 100톤 이상의 대형선이 출어 일을 맞아 본격 시즌에 들어갔다.

다만 선행 출어한 장관 허가 소형 어선은 전체 어선이 어획 제로로 귀항하는 등 어군을 찾지 못해 어기 전 예보대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 같다.

일본 전국쫑치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어기 어선 계층별 출어 예정 척수는 10톤 이상 ~20톤 미만 소형선이 43척, 20톤 이상~100톤 미만 중형선이 27척, 대형선이 52척이다.

이 가운데 소형선, 중형선은 해금일을 맞아 이미 각각 12척이 출어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JAFIC) 도우토우 출장소에 따르면 각 어선은 러시아 200해리 내에서 어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해 소형 어선은 전체 어선이 어획 제로 상태로 귀항했다.

중형선도 대부분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공해로 향했지만 8월 19일 현재 어획 정보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어기는 8월 18일 밤에 중형선이 공해에서 본 어기 후 첫번째 어획을 실시, 도우토우(道東)에서 첫 위판은 지금의 출어 체제가 된 2013년 이후 가장 늦은 8월 22일이 되었지만 이번 어기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7월 말에 일본 수산청이 발표한 「북서 태평양 쫑치 어획 예보」에서는 어기 중 내유량은 사상 최소 어획이었던 지난 시즌을 더 하회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어장도 원방(遠方)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도 매우 나빠 일부에서는 쫑치를 단념, 다른 어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8월 20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처 : kosfa@kosfa.org



일본 선박 평형수 검사 장비 소개 사이트 등장 정미기 제조업체 사타케, 특설 사이트 개설

정미기 제조업체인 사타케(히로시마현 히가시)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선박 평형수 관련 제품군 "밸러스트 검사 솔루션"과 그 기술을 소개하는 특설 사이트를 개설했다.

선박 평형수는 짐을 싣지 않은 화물선이 항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넣는 해수를 말한다.

선박 평형수로 운반되는 수생물의 이동이 생태계를 해친다고 해서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에 채택, 2017년 9월에 발효된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은 평형수 배출 기준을 정해 평형수 처리 장치 탑재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2012년부터 선박 평형수 관련 기기의 개발을 진행, 2016년 4월에 검사 장치를 발매했다.

향후 국내의 항만국 통제(PSC, 기항국 검사) 및 검사 회사, 조선 회사 등으로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자체 개발한 선박 평형수 검사 제품 특징과 검사 흐름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했다.

특설 사이트에서는 정미기 메이커로서 오랜 세월 길러 온 쌀의 검사·분석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선박 평형수 생물 농축 장치 「밸러스트 캐치」와 평형수 생물 검사 장치 「밸러스트 아이」를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섞어 해설하고 있다.

또한 평형수 검사에 대해서는 평형수의 샘플링에 필요한 인력 및 검사 비용, 전문적인 검사 업무 등 과제로 꼽혔던 것이나 제품 개발까지의 회사 대처 등도 소개하고 있다.

특설 사이트는 일본어와 영어를 준비했다. 밸러스트 검사 솔루션에 관한 자료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판매원인 商船三井 테크노 트레이드로 링크도 걸려 있다.

사타케 홍보 담당자는 『쉽고 빠르게 컴팩트를 실현한 검사 장치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4일자



일본 파나소닉 자회사, 업계 최초 야외 전용 냉동고 판매 파나소닉 자회사 산기시스템, 무인 식품 수하 보관

대형 가전 업체 파나소닉 자회사인 파나소닉 산기시스템(도쿄도 스미다구)은 8월 24일부터 업계 최초로 야외 전용 냉동고 주문 판매를 시작했다.

옥외에 설치하는 타입의 냉동고에서 냉동식품 등 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수하(荷受)와 1차 저장을 야외에서 할 수 있다. 본체 내부에 보관 식품 도난 방지 대책을 마련, 무인 납품 보관도 가능하다.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편의점 건물 안 점포나 전철 계통 매점을 중심으로 야외 전용 냉장고를 판매하고 냉장·냉동식품의 수하와 1차 저장, 그것을 통한 점포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신종 코로나 재난에 따른 소매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매점 측면에서 식품을 납품할 때 한층 생력화 및 인력 감소, 운영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회사는 소매점 등으로 향후 한층 무인 수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 야외 전용 냉동고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냉동고는 야외(주위 온도가 영하 20도~플러스 35도)에 설치하고 본체 내부의 온도를 마이너스 25도 ~ 마이너스 15도를 유지한다.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차양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냉동고에는 비를 막는 구조를 시설하거나 외기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대비해 동결 방지 히터를 장착했다.

도난 장난 방지 대책도 철저하여 제공된 자물쇠로

잠금이 가능하며, 빠루 등으로 뜯어 내기 어려운 인핏형이라는 구조의 문을 채용했다고 한다.

필요한 시간만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운전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원격 데이터 서비스 「에스큐보」와 연계하면 원격으로 내부 온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 냉동고의 외형은 폭 852mm, 길이 666mm, 높이 2,061mm로 유효 내부 용적은 555리터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코로나 영향 조합원 60%가 매출 감소 全水商連, 조사 음식점 납품 사업 7~90% 감소

일본 전국 수산물 상업협동조합연합회(全水商連, 岩沼徳衛 회장)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을 느낀다고 대답한 조합원이 90%를 넘어섰다.

업태별로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이 가장 많았고, 소매 및 납품의 양 사업, 음식점으로 이어졌다.

빠른 곳은 2월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역이나 업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30%가 3월부터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 연합회는 조합원 장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6월~7월 3일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22개 도,도,부,현 74 곳에서 답변이 있었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0%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답변했다. 특히, 음식점 및 공급 사업을 하는 조합원은 전년의 70~90%로 감소폭이 컸다. 소매 중심의 조합원은 20% 감소가 가장 많았다.

한편 「소매점은 4, 5월 모두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로 전년 초과한 곳도 있었다. 학교 급식이나 음식점 등으로 납품도 하는 점포에서는 「납품은 줄었지만 가게의 매출은 증가해 전체적으로 20% 감소했다. 6월말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매장에 알코올 소독과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위생 대책을 강화했다. 내식 수요에 대응 가공품이나 생선회 상품의 종류를 늘리는 등 상품 구색을 강화했

으며, 새로운 도시락이나 반찬 판매, 배달을 시작한 곳도 있었다.

외출을 자제해 전체적으로 손님이 적어진 반면, 남성이나 젊은 손님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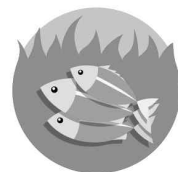
이전에 비해 주말에 고 단가인 생선회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SNS를 활용한 정보 발신도 확산되고 있다. 매출 감소 방지책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 Tube」를 시작한 점포에서는 내점객 수가 전년 동기의 2배가 되었다.

구매면에서는 85%, 판매면에서는 77%의 조합원에 변화가 있었다. 69%의 조합원이 「한 번에 구매하는 양이 줄었다」고 답했다. 여러 사업 형태를 조합원 가운데는 「음식점에 대한 구매는 반감했지만 소매점은 증가했다」는 소리도 있는 등 업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상재 따라서는 입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입 가격 상승이나 제품 결함이 발생해 구매에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판매가 부진하자 시장에 가는 횟수를 줄인 사람도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日 테쿠니칸社, 액체 급속 동결기 「凍眠」 보급 계획 자사 액체 급속 냉동기로 "냉동 생선" 수도권 직매점 설치

액체 급속 동결기의 개척자인 일본 제조업체 테쿠니칸(요코하마시 소재, 山田義夫 사장)은 연내에 독자적인 액체 급속 동결기 「凍眠」으로 급속 냉동 생선이나 육 가공품 등의 직매점 「TOMIN FROZEN」을 수도권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 직매점 내에는 해동한 제품을 시식 제공하는 카페 공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할인점 바이어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생선 등의 매력을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협력 업체 전국에서 모집>

회사는 일본 수도권에서 내년에 추가로 5개 점포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장래에는 전국에 더 많은 점포를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협력해 「凍眠」으로 생선과 가공품을 급속 동결해 이들 직매점에 제공해줄 업체를 전국에서 모집 중이다.

이 회사 야마다 사장은 『「凍眠」으로 급속 냉동한 생선의 장점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다. 최근에는 생선이 제철을 벗어나거나 잡히는 장소가 바뀌어 왔다. 산지에서 급속 동결하면 갑작스런 양륙에도 대응할 수 있어 신선도를 높게 유지한 채 냉동 생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해 줄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꼭 연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동면」은 마이너스 30도까지 차게 한 알코올 용액 안에 식품을 넣어 동결시키는 구조이다. 동결 시간 단축과 얼음 결정 극소화를 실현해 식품 안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드립 발생이 적고) 해동해도 한없이 동결 전의 맛과 식감을 재현 할 수 있다고 한다.

「동면」으로 갓 잡은 생선을 바로 급속 동결하면

산지의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해 냉동 유통할 수 있다고 해서 화제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대형 식품 도매 업체인 伊藤忠食品(오사카시, 오카모토 히토시 사장)과 업무 제휴했다.

양사는 공동으로 설립한 생선 등 냉동식품 브랜드 「凍眠市場」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직매점에서 「凍眠市場」을 판매할 예정이다.

테쿠니칸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목표 「SDGs」 실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의 중소기업 기술과 인재 육성을 통해 「SDGs」 추진을 도모하는 '유엔의 벗 SDGs 기술·인재 육성 추진 위원 모임'의 특별 회원을 맡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0일자



日 7월 수산물 수입 칠레 은연어 55% 증가한 3,887톤 새우 7% 증가한 1.5만톤 대

일본 재무성이 8월 2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산물 수입량(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피쉬 밀, 해초)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16만 9,605톤이었다. 6월에 전년 동월을 웃돌았지만 다시 낮아졌다.

鮮冷새우가 7% 증가한 1만 5,506톤, 鮮冷연어·송어가 7% 증가한 1만 3,457톤이었지만, 鮮冷참치가 23% 감소한 1만 3,961 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총량 다시 감소, 16만 9,600톤>

수산물 수입 금액은 22% 감소한 1,132억 9,700만 엔이었다. 수량이 전년 동월을 웃돌았던 鮮冷새우가 6% 감소한 156억 6,300만 엔, 鮮冷연어·송어가 11% 감소한 116억 4,500만 엔으로 감소, 단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

鮮冷참치도 38% 감소한 95억 200만 엔이었다.

연어·송어 수입량 가운데 냉동은 19% 증가한 6,376톤, 신선·냉장은 11% 감소한 1,463톤. 냉동은 6월의 2.8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의 수입량을 유지했다.

주력인 칠레산 은연어는 55% 증가한 3,887톤, 금액은 10% 증가한 18억 9,000만 엔이었다. 평균 단가는 486 엔으로 전월 대비 16 엔 올랐다. 홍연어는 12% 감소한 1,025톤, 송어는 8% 감소한 841톤. 신선·냉장 주력인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는 11% 감소한 939 톤이었다.

참치 수입량 가운데 냉동 황다랑어는 31% 감소한 4,337톤, 주력인 대만이 31% 감소했다. 냉동 눈다랑어는 14% 증가한 5,501톤, 대만은 15% 증가했고

중국은 1% 감소했다.

냉동 가다랑어는 63% 감소한 1,595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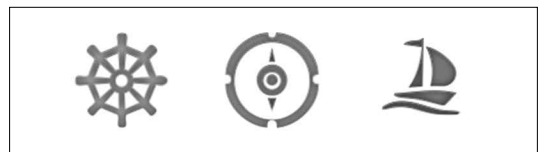
한편, 신선은 황다랑어가 20% 감소, 눈다랑어가 5% 증가, 남방 참다랑어가 41% 감소했다.

새우 수입량 중 남방계가 12% 증가, 단새우(아마에비)계가 30% 감소, 조제품은 18% 감소했다. 남방계는 주력국인 인도가 23% 증가로 전년 동월을 밀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수량을 커버했다.

수리미의 총 수입 수량은 19% 감소한 1만 1,473톤, 금액은 29% 감소한 37억 2,200만 엔이었다. 이 수량 중 미국산 명태는 9% 증가한 3,280톤, 실꼬리돔은 39% 감소한 794톤이었다.

고등어 수량은 34% 증가한 3,585톤, 금액은 13% 증가한 8억 4,000만 엔이었다. 냉동 살오징어 계통 수량은 5% 증가한 6,582톤, 금액은 2% 감소한 32억 5,7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7월 수산물 수출 수량 6% 증가, 금액 14% 감소 냉동 가리비, 부리 필렛 저조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산물(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피쉬 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5만 5,641톤, 14% 감소한 172억 8,700만 엔이었다.

금액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주력 품목으로는 냉동 가리비, 부리 필렛이 저조했던 반면, 냉동 날개다랑어, 냉동 고등어가 증가했다.

냉동 가리비는 주력인 중국 수출이 47% 감소한 3,765톤, 71% 감소한 7억 6,700만 엔으로 떨어졌다. 대만 수출은 6% 감소한 190톤, 22% 감소한 3억 8,700만 엔이었다. 미국 수출은 66% 증가한 104톤, 19% 증가한 1억 7,700만 엔이었다.

냉동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가 되는 태국 수출이 20% 감소한 1,162톤, 6% 감소한 1억 6,200만 엔을 기록한 반면 냉동 날개다랑어는 태국용 수출이 8배인 5,382톤, 5.2배인 13억 3,300만 엔, 베트남 수출은 13배인 2,188톤, 10.7배인 7억 900만 엔으로

신장이 계속되었다. 냉동 고등어는 21% 증가한 1만 6,996톤, 21% 증가한 18억 9,300만 엔이었다. 베트남 수출은 37% 증가한 3976톤, 37% 증가한 4억 6,300만 엔, 태국 수출은 46% 증가한 3,573톤, 44% 증가한 3억 9,000만 엔을 기록했다.

한편 이집트 수출은 54% 감소한 1,677톤, 50% 감소한 1억 9,300만 엔을 기록했다.

부리 필렛은 냉동, 신선 모두 침체가 계속 되었다. 냉동은 45% 감소한 449톤, 45% 감소한 8억 400만 엔이었다. 이 중 대미 수출은 47% 감소한 378톤, 48% 감소한 6억 7,300만 엔이었다. 신선은 56% 감소한 59톤, 56% 감소한 1억 500만 엔이었다.

냉동 가을 연어는 2.5배인 413톤, 2.2배인 1억 6,400만 엔이었다.

냉동 명태는 35% 증가한 729톤, 전년 동월 수준인 6,4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일본 수산물 시장 경유율 첫 50% 붕괴 2017년도 정부 조사, 2.8 포인트 하락

일본 농림수산성이 최근 발표한 「승과 원년 도매 시장 데이터 집」에 따르면, 2017년도 수산물 도매 시장 경유율은 전년도 대비 2.8 포인트 하락 49.2%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동안 시장 경유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 60%를 밀돈 이후 50%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9년도의 중앙 도매 시장 수는 64개. 이 가운데 수산물은 34개로 전년도와 변함이 없었다.

2018년도 수산물의 취급 실적은 수량이 5.5% 감소한 141만 6,000톤, 금액은 3.6% 감소한 1조 4,504억 엔이었다. 신선, 냉동, 가공 모두 전년을 밀돌았다.

2018년도 경매 입찰 거래 비중(금액 기준)은 0.5 포인트 하락한 15%. 이 가운데 생선이 1.4 포인트 하락한 23.4%였다. 냉동은 전년도 수준인 9.8%. 염건 가공은 소폭 상승, 5.2%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8일자



일본, 소금 미사용 고등어 통조림 발매 宝幸社 가을철 제품 발표, 참치 캔 신제품도 출시

일본의 수산식품 회사 宝幸(도쿄도 시나가와구, 모리모토 다쓰미 사장)은 8월 18일 가을 신상품을 발표했다.

상온 식품은 소금 미사용 고등어 통조림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제품 7종, 리뉴얼 제품 8종 등 총 15종으로 연간 매출 목표는 19억 6,500만 엔(가정용 18억 5,000만 엔, 업소용 1억 1,500만 엔)으로 했다.

가정용은 신상품 5종, 리뉴얼 제품 8종을 출시했다.

「일본 고등어 미주니(싱겁게 익힘) 소금 미사용, 다시마 사용 190g」은 일본산 고등어를 사용해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홋카이도산 다시마 국물로 담백하게 마무리했다.

「일본 멸치 매실 풍미 140g」은 홋카이도산 멸치를 사용해 산뜻한 매실 풍미가 특징이다. 「라이트 참치 플레이크 참치유 절임 태국산 70g×3캔 슈링

크」등도 출시한다.

업소용으로는 「레토르트 라이트 참치 플레이크 참치유 절임 베트남산 200g」「레토르트 라이트 참치 플레이크 참치유 절임 베트남산 500g」 2종을 신상품으로 내놓았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들어간 플레이크 타입의 참치유 절임으로, 소용량 사이즈로 취급하기 쉽게 했다.

이밖에 치즈·유제품인 롤프(ROLF) 제품은 신상품 5종, 리뉴얼 제품 5종을 출시해 17억 엔, 동결 건조 식품은 신제품 5 종에서 2억 7,000 만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4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8월 21일자





올해 일본 급식 시장 3% 축소 4.7조 엔 야노경제연구소, 코로나로 휴교 재택 근무 증가 영향

시장 조사 기관인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도쿄도 나카노구)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국내 급식 시장 규모(말단 매출액 기준) 예측은 4조 6,674억 엔으로 2019년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재난에 따른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와 학교 임시 휴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회사는 2024년의 일본 국내 급식 시장은 2019년 대비 0.8% 증가한 4조 8,319억 엔으로 예측했으며, 분야별로는 노인 시설이나 학교 급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4~7월 일본 국내 급식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이 시장 규모를 조사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19년도의 일본 국내 급식 시장은 4조 7,940억 엔으로 2018년 대비 0.4% 증가했다. 적어도 2019년도까지의 5년 간 이 시장은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축소 경향을 보여 주었다.

2019년도의 동 시장 분석은 「사업소 대면 급식」의 구성 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고, 「병원 급식」 23.9%, 「고령자 시설 급식 등」 20.8%, 「도시락 급식」 12.6%, 「학교 급식」 10.2%, 「유치원·탁아소 급식」 3.7% 순이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19년도는 노인 시설이나 학교, 유치원·탁아소 용 급식 매출이 증가했다.

2020년도는 코로나 재난을 배경으로 사업소 대면 급식이나 도시락 급식, 학교 급식 등의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다. 급식 서비스 기업에서 비상식량 수요 발생 등이 플러스로 작용하는 한편 재택근무와 휴교에 따른 급식 서비스 중단 및 식사자 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5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미국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에 실제 매장 오픈 첫 독자적인 슈퍼 체인

식품 택배 등 세계 최대 기업인 아마존(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은 8월 27일 자사의 식품 슈퍼 체인 '아마존 프레시' 1호점(넓이 약 3,252㎡)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처 우드랜드 힐스시에 오픈했다. 회사 산하의 식품 슈퍼 체인은 2017년 8월에 인수한 홀 푸즈 마켓이 있지만 독자적인 체인으로서는 첫 매장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일본 무역진흥회)는 8월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즈니스 단신으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단신에 따르면 이 점포에서는 쇼핑객이 '대시 카트'나 '알렉사'의 새 기능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자동 정산과 상품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트 별로 상품 자동 정산>

대시 카트는 구매자가 카트에 담은 상품을 컴퓨터 비전 및 센서 기술로 식별, 상품 데이터를 쇼핑객의 아마존 계정에 추가한다. 쇼핑객은 보통 계산대와는 별도로 마련된 대시 카트 전용 라인을 통과하면 앱이나 온라인에서 자동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쇼핑객 정산을 위해 계산대에 설 필요가 없다.

인공 지능(AI) 음성 비서 '알렉사'의 신 기능은 쇼핑객이 아마존 앱이나 대시카트 상의 화면에서 쇼핑 목록에 접속하여 상품의 위치와 정보를 음성 및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편리함의 추구로 태어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고객들이 가게에

서 사람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등에서도 개점>

아마존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존 프레시 1호점의 이용은 개점 직후에는 우드랜드 힐스시에 거주하는 초청 고객으로 한정하나 몇 주 후에는 일반 고객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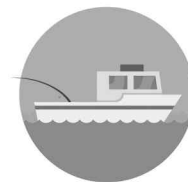
이 회사는 우드랜드 힐스점 외에 어바인시 등 남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도 같은 체인점을 개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 유행병으로 소비자의 외출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아마존의 2020년 2분기 온라인 식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이다.

회사는 식료품 배달 능력을 2.6 배 이상으로 강화하는 외에 커브 사이드 픽업에 대응해 식료품 수령 장소 수를 약 3배로 늘리는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왔다.

커브 사이드 픽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실제 매장 주차장 등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나미비아 어업 쿼터 경매 실시, 6억 2,790 N\$ 확보 최고 경매가 민대구 25,000N\$/톤, 전갱이 12,500N\$/톤

나미비아 정부는 어업 쿼터 경매를 실시했으며 총 경매 소득(경매 수수료 포함)이 6억 2,790만 나미비아 달러(N\$)라고 밝혔다. 6억 2,790 N\$는 정부가 평상시와 같이 어업 쿼터를 할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3억 1,500만 N\$ 보다 2배에 가까이 많다. 어종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민대구>

나미비아 정부는 민대구 쿼터 1만 1,000톤 중 40%를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60%를 국내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경매에 부쳤다.

국제 경매로 진행된 쿼터 6,700톤의 경매가는 톤당 7,700 N\$로 책정되었다. 재무부는 경매 결과 나미비아 참여자가 86%였다고 알렸다.

경매 자료에 따르면 국제 경매 입찰가는 평균 15,703 N\$였다고 한다. 25,000 N\$와 22,000 N\$를 제시한 입찰자만이 입찰 전량을 낙찰 받았으며 최저 입찰 가격은 14,011 N\$였다. 국제 경매 입찰자는 7명으로 3명만이 쿼터를 배정 받았다.

<전갱이>

전갱이 총 입찰 쿼터 72,000톤 중 43,200톤이 국제 경매 쿼터로 나왔고 최저 경매 가격은 톤당 3,500 N\$였다. 국제 경매 입찰건수는 16건으로 6건이 낙찰되었다. 기재부는 나미비아 기업이 국제 경매 쿼터 낙찰 물량의 67%를 가져갔다고 알렸다.

전갱이 최고 입찰가는 12,500 N\$, 최저 입찰가는 1,500N\$이며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만이 쿼터를 배정 받았다.

<아귀>

아귀 392톤은 국제 경매 100%로 이루어졌으며 경매가가 톤당 7,700 N\$로 책정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입찰자는 100% 나미비아인이었다고 한다. 외국인 입찰자가 없었다는 것은 승인된 외국 입찰자가 없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기재부는 5건의 입찰을 접수했고 톤당 13,906 N\$를 제시한 입찰자 1인에게 모든 쿼터를 할당했다. 낙찰된 입찰자는 아귀 낙찰에 대한 대가로 총 550만 N\$를 지불할 것이다.

* 기사 출처: namibian, 2020년 9월 1일





노르웨이 수산물 8월 수출액 14% 감소

NSC 발표, 누계는 전년 수준 유지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는 8월 3일 노르웨이 8월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73억 노르웨이 크로네(이하 크로네)이었다고 발표했다.

연어와 대구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유럽에서 여름 휴가 기간에 소비량이 늘지 않았던 점과 6월 베이징 식품 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원의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1~8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로 전년 초과를 유지했다.

8월 연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3억 크로네였다. 2019년까지 대 중국 수출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월 중국 수출액은 54% 감소했다. 베이징(北京)의 전염원 의혹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수산물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

가 나온 영향이 컸다고 NSC는 설명했다. 단, 영향은 점차 감소, 가을 경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NSC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신선 연어 소비량은 20% 증가했다. 감염병 대책으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인 식품 판매점이 판촉 기획을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

송어 수출액은 2% 증가한 3억 2,600만 크로네이었다. 우크라이나, 미국, 핀란드가 8월의 주요 시장이었다. 고등어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40% 감소한 9,500만 크로네이었다. 청어는 전년 시세 하락의 반작용으로 수량이 12% 줄었지만 금액은 13% 증가했다. 냉동 대구는 36% 감소한 1억 4,200만 크로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7일자

가나, 중국 불법 어선에 다시 허가 부여

불법 어업으로 공판 중인 중국 어선에 허가 내줘

가나 당국은 가나 해역에서 오랫동안 불법적인 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트롤 어선에 다시 허가를 부여하는 기이한 결정을 했다.

환경정의재단(EJF)에 따르면 Lu Rong Yuan Yu 956호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불법 어구를 사용하고 소형어를 어획해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 선박의 소유주는 중국 회사인 Rongcheng Ocean Fishery Co Ltd로 2019년 6월 최초 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Lu Rong Yuan Yu 956호는 추가 공판이 보류되는 동안 가나 수역에서 다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았다.

EJF는 가나 2002 수산업법에 '이 법의 위반에 대한 판결 또는 다른 결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Section 76(1)(c))' 수산위원회는 어업 허가

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나 정부는 2012년 2월에 가나 해역에 들어오는 새로운 산업용 트롤 어선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 이후에도 중국에서 새로운 선박이 계속 유입되었다. 2018년에 허가를 취득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신규 또는 교체 선박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시행된 후인 2013년 이후에 진입했다.

EJF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가나, 세네갈, 라이베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에 중국 선박들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가나 산업형 어선의 90%가 중국 선주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에라리온에서는 중국 선주와 연관된 비율이 75%에 이른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8월 25일자



NOREBO 신조 트롤선 진수

Kapitan Sokolov선, 신조 예정 10척 중 첫 번째로 진수

러시아 어업 회사인 Norebo는 신조선박 시리즈 중 첫 번째 선박을 Severnaya(Northern) 조선소에서 진수했다.

이번에 진수된 Kapitan Sokolov선은 Norebo사의 자회사인 Rybprominvest사의 소유로 Nautic Rus사에 의해 혁신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Norebo사는 10척의 가공 트롤선 건조에 384억 루블(6,194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Kapitan Sokolov선은 170701시리즈의 첫 번째 선박으로 2018년 11월에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가을

에 인수될 예정이다. 같은 시리즈의 다른 선박들은 각각 다른 단계를 밟고 있다.

Kapitan Sokolov선은 북대서양에서 조업할 예정이며 다양한 어류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필렛, 다진 어육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선박 주요 명세는 길이 81.6m, 폭 16m, 속도 15노트, 배수량 5,500톤, 주엔진 출력 6.2메가와트, 하루 생산 능력 150톤, 하루 동결 능력 100톤, 선원 80명이다.



* 기사 출처 : PortNews 2020년 8월 31일자, FiskerForum 2020년 9월 2일자



러시아 태평양 연어·송어 30만톤 대 공산

8월 20일 총 어획량 40% 감소한 23만톤

6월 1일 조업이 시작된 러시아 2020년 어기 태평양 연어·송어 어획량은 30만톤 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북양개발협회(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 연합회 내)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어업 연구소 톨로 센터가 집계한 20일 현재 누계 총 어획량은 23만 1,8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 최근 짝수 해인 2018년 동기에 비해 절반으로 모두 크게 떨어지고 있다.

8월 20일 현재 주요 생선 종별 어획량은 카라후토마스(곱사연어)가 15만 9,800톤, 시로사케(흰연어)가 3만 8,700톤, 베니사케(홍연어)가 2만 9,600톤이다. 2018년, 2019년에 높은 수준의 어획량을 보였던 카라후토마스(곱사연어)는 지난 10년 중 2015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로사케(흰연어)는 2011년 다음으로, 베니사케(홍연어)도 2010년 다음으로 적다.

베니사케(홍연어)는 캄차카 쿠릴 해역의 종어가 가까워 최종적으로 3만 톤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을 보면 8월 20일까지 30만톤 미만의 어획량을 보였던 것은 2010년과 2014년의 22만 2,000톤 전후, 2015년의 26만 6,000톤, 2017년의 27만 8,000톤, 2013년 29만 5,000톤이다. 거의 종어가 되는 11월 15일 시점 어획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30만톤 대 초반에 머물렀다.

가장 패턴이 가까운 것은 2010년으로 최종 어획량이 32만 5,000톤이었다. 같은 해 11월 15일까지의 어획량은 카라후토마스(곱사연어)가 19만 9,000톤, 시로사케(흰연어)가 8만 9,000톤, 베니사케(홍연어)가 3만 1,000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8일자

노르웨이 수출 1~7월 수산물 3% 증가한 608억 크로네 NSC 발표, 연어 전년 수준 406억 크로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 발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1~7월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608억 노르웨이 크로네(이하 크로네)이었다. 크로네 하락은 전체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어종의 영향에 차이가 있다. 청어 등의 가격은 연어나 대구 등의 높은 단가 어종에 비해 영향이 작다고 NSC는 설명했다.

6월 베이징의 식품 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원 의혹이 불식되었지만 아시아의 상황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NSC 측은 밝혔다.

또한 관광 산업의 활기가 여전히 돌지 않고 화물의 취급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한이 있다고 한다.

연어는 전년 수준인 406억 크로네. 7월은 아시아의 수요 감소로 일부 가격 하락을 보였다. 한편 폴란드, 프랑스, 독일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송어는 11% 증가한 22억 크로네이었다.

고등어는 45% 증가한 22억 크로네였다. 비수기여서 7월의 증가폭은 작았다. 청어는 28% 증가한 19억 크로네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에 따라 음식점의 수요가 감소해 신선 대구는 3% 감소한 17억 크로네를 나타냈다. 가정용으로 사용량이 많이 사용되는 냉동 대구는 14% 증가한 21억 크로네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21일자



중국, 태평양 EEZ에 대한 지배력 강화 키리바시 Maamau 대통령 재선 성공, 중국과 관계 강화

키리바시 신정부는 친중 성향이 짙다.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키리바시와의 관계를 활용하려 한다.

키리바시 Taneti Maamau 대통령은 6월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Policy Forum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Maamau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은 중국의 원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에 Maamau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시 키리바시와 중국은 일대일로(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 글로벌 인프라 개발 전략)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키리바시 대통령은 방문 기간 동안 『경제, 무역, 투자, 관광, 어업,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licy Forum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부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키리바시와 같은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중국의 관심이 키리바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생산국 중 하나라는 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350km²의 광대한 EEZ를 보유하고 있다. 키리바시 EEZ는 거의 인도 대륙 크기와 맞먹으며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참치 공급량의 16%를 차지, 태평양에서 가장 풍부한 참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Policy Forum에 따르면 키리바시는 자국 선박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도해 왔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한다. 키리바시는 또한 더 많은 캔 가공 공장을 건립해 수입을 증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Kiribati Fish Limited라는 한 개의 가공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Maamau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적 선박이 타라와에서 전채를 늘리도록 강제하고 향후 더 큰 참치 공장에서 가공하거나 원물을 비행기로 운송하도록 하여 어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정책 블로그에서 밝혔다.

키리바시 정부의 재정 수입은 입어료가 75%를 차지한다.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호주는 가장 큰 원조국으로 매년 2,700만 호주 달러(1,9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키리바시 정부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리적, 전략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키리바시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18일자





그 저녁바다

이 정 하

아는지요?
 석양이 훌쩍 뒷모습을 보이고
 그대가 슬며시 손을 잡혀 왔을 때,
 조그만 범선이라도 타고 끝없이 가고 싶었던
 내 마음을.
 당신이 있었기에 평범한 모든 것도
 빛나 보였던 그 저녁바다
 저물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석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요?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사랑이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것이
 내 가장 참담한 절망이었다는 것을.
 저무는 해는 다시 떠오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곳을 찾게 될 날이 있을까.
 서로의 아픔을 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당신의 가슴에 저무는 한 점 섬이고 싶었던
 내 마음, 그 저녁바다를.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추가 마련

문성혁 장관, 수출업계와 영상간담회 통해 수출 확대 논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한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내 수산물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9% 감소한 14.9억 달러로, 수출 규모 감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활넙치, 참치 등 외식용 품목이 크게 감소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태국, 베트남, 일본, 중화권 등 주요 수출국에서의 감소 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물류센터 임대료 인하 등을 비롯, 추경 예산 51억 원을 편성하여 중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수산물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출업계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지속되는 등 수출 감소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출 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사업 계획을 조정해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 증가 품목과 수출 상위 시장을 대상으로 즉시 수출과 연결되는 판촉 사업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조미김, 참치캔, 어묵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개설 예정인 온라인 K-SEAFOOD 전시관을 통해 제품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영상 상담

회를 병행하여 연내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그 외 가공품 선호 확대로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마른김, 참치 등 가공용 원물에 대해서도 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대형 수입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판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 식품 소비가 활발한 중화권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 등으로 비대면 판촉사업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수입상이 권역 내 여러 국가와 거래가 활발한 구조인 아세안 지역의 경우 글로벌 한인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판촉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미국 시장의 경우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활용한 풀필먼트 서비스, 실시간 방송 등을 활용한 판촉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9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수산물 수출업체, 수출지원기관, 해외무역지원센터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가별 시장 동향을 점검한 후에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장관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유통시장을 활용한 소비 일상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효과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수출 업계와 협력하여 해외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K-SEAFOOD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혁신성장의 마중물, 해양수산 신기술을 소개

시 키 스 이 즈 기 어 세 언 그 케 바 시 어 기 저 미 시 려 시 고 기 처 케 고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에 신청된 71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247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그간 인증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진행현황을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인증받은 신기술이 제품화,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에 이르고, 대표적인 11개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용화와 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상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현장에서의 성능,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된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탈황 첨가제를 이용한 황산화물 생성 저감 기술’은 선박연료에 고

분자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탈황 첨가제를 투입해 황산화물을 흡착·중화하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하면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거리 휴대용 레이저 기반 오일 원격 검출 기술’은 휴대용 레이저를 목표물에 조사하여 발생되는 광신호를 분석, 물질의 온도·분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할 경우 보다 소형화·경량화된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유류유출 모니터링 제품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유류유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출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인증 받은 신기술들이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유관 정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계획은 9월중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실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0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2,416명이 응시한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을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시험은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2,975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대본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해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

김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 수용 인원도 작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수험생 안전을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설계 공모

9월 2일부터 공모 시작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9월 2일부터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전통 해양산업(항만, 조선, 수산 등) 중심의 지역 해양산업 구조를 해양과학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총사업비 298억 원(국비 209, 시비 89)을 투입하여 동삼혁신도시 내에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10,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업 입주 공간 및 협업공간, 시제품 제작실, 공동연구시설 등이 마련된다.

센터에서는 지역기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공공기관, 대기업 간 공동연구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업,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클러스터

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설계 공모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해당하며,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모안을 선별하여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2차 심사는 참가 건축사들이 직접 공모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참가 건축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공모안을 평가하는 공개발표·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심사과정은 온라인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9월 2일 시행공고 후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2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해 11월 3일 부산시 설계공모 누리집(www.busan.go.kr/compe)에 결과를 발표한다.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 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 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에게 법적 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했다.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먼저,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해수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기준 행정처분 개정

8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업의 면허, 허가 및 선박 안전조업규칙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상 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양식수산물 유통,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양식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둘째, 양식업의 면허, 허가 관련 위반 행위(12개)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앞으로는 면허, 허가가 취소되도록 해 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어장관리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어장관리선에 대한 제한,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선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45일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다.

이 외에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과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589-1604	총괄
		강성현 차장 589-1605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589-1621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589-1606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589-1620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589-1610	총괄	
	소기동 차장 589-1611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589-1619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589-1608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589-1612	총괄
		진호정 차장 589-1613	선망
	해외협력 2부	최봉준 대리 589-1614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589-1615	연수·오징어
부산지부	-	이형균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콩치
	공인계량소	최동환 주임 589-1618	기타트롤
		이영두 팀장 051-253-3388	총괄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253-3391	김현애 과장 253-3388	차량계량
		이영두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국제협상총괄 일반/지역수산기구	이지현 전문관 044-868-7832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일본 업무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국제협상지원팀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ODA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총괄 일반/지역수산기구	ODA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통계, 협의회	통계, 협의회
	이하나 전문관 044-868-7363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5호

발행 : 2020년 9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